



가자! 가자! 오천 여학우여
민주의 횃불들고 외치나니
여성 해방이여!

잉태

분단조국43년 창간호



연세대학교 여학생지 잉태 편집부



「잉태」 분단조국 43년

서시

이 어둠의 끝은 아무래도

김 진 경

창간사

9 / 여학생부장 박 선 영

특집

총여학생회 건설을 바라보며 / 11

- I. 총여학생회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한 제언 / 17
- II. 남녀공학내에서의 실태 / 22
- III. 사회구조적 성모순에 대한 개관 / 28

여성 현실과
우리

• 혼수문화속에 나타난 결혼상 / 37

편 집 부

© 매춘현장 르뽀

/ 41

• 우리시대의 뒷골목 막달레나의 집

취 재 부

잉 태

생명은
 낡은 젖속에서
 낡은 것을 먹으며 자란다
 썩어 문드러지 냄새나는
 시궁창의 역사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끊임없이 줄이어오는 민족의 핏줄
 한의 역사
 좌절의 역사속에도
 우리의 어머니는
 새 생명을 탄생시켰다
 어두운 밤
 뼈를 꺾어대는 사랑과
 살을 찢는 아픔으로
 잉태된 아이는
 그 줄을 이어나간다
 그러나 새롭게 잉태된 아이는
 또다시 오류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는다
 짓밟힌 만큼 순결하고
 갈라졌던 만큼 자유롭고
 차별당한 만큼 평등하고
 억압당한 만큼 해방인
 새롭게 잉태된 아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될
 썩은 시궁창에서 피어나는 연꽃이다.



여 성
 공동체
 문 화

시 흠어지는 노래 / 50 / 박 성 해

여성 미술 운동에 대하여 / 51 / 문 영 미
 「꽃을 통하여 읽고」 우 지 숙

노래에 나타난 여성상 / 58 / 안 석 회
 - 대중가요와 대학가 노래 중심으로 -
 - 함께 부르기 노래 - 곡

여성 소식

/ 73 / 취 재 부

여성학
 자료집

여성문제의 과학적 인식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 78 / 학 술 부

읽고 나서

서시

이 어둠의 끝은 아무래도

김진경

아 어둠의 끝은 아무래도
그냥 밝음을 마냥 것 같애
그곳에는
푸르고 투명한 물결이 떠오를거야
그대 그곳으로 가려면
우리의 몸을 태워야겠지
그 푸른 물결속에
욕망과 상처와 부패와 사랑과
온갖 것이 너무도 맹렬하게 너무도
부드러운 물결속에
망설임 통도 없애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거야
어둠 이 밝음의 한 시작이라는 것을
물결이야말로 능숙한 어둠의
폭발이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둠의 뜻을 알거야

오 고통이며 상처받은 사랑이며
살아 있음의 욕망과 끈끈함이며
물결을 잉태한 땅이며
아 어둠의 끝은 아무래도

잉태

분단조국43년
창간호

연세대학교 여학생지 잉태 편집부

이 책을

연세 5천 여학우에게 바칩니다.

창간사



여학생부장 박 선 영

연세대학교 여학생부가 84년 총학생회 부활 이후 활동을 시작한지 어언 4년째, 이제야 비로소 그 활동의 축적된 결과물이 '임태'로서 그 최초의 출간을 맞게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진보적 여성단체들이 생겨나고 기존의 단체들도 활발히 자기 활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여학생들의 연대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내에서는 저희 여학생부가 그간의 활동에 대해 냉엄하게 비판하고 연세 5천 여학우들과 함께 하는 '총여학생회'의 발족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학내의 간행물 속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여학생 운동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문구나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글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우리들의 몸부림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지보다는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분단된 식민지 조국의 총체적 모순의 담지자인 한국의 여성들이 그 억압과 고난의 사슬을 끊고 스스로 역사와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현재적 조건에 눈을 떠야 합니다. 사회와 학원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여성모순을 해결함에 있어 여학생 독자의 조직체계와 이념이 정립되지 못한은 우리를 더욱 절극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민주적 자치기구의 부재는 여학생들의 의사를 정확히 수렴하여 실천으로 조직될 수 없게 하였으며 우리의 활동을 고립·단절적으로 진행시켰습니다.

이제 연세 여학우의 나아갈 방향을 밝힘에 있어 '임태'가 여학생 독자의 언론매체로서 민주적 의사 수렴의 장이 되어 새롭게 건설될 조직체계와 더불어 질적인 변화를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태'의 지속적인 발간을 기대하며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의 몸짓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국을 앞당기는 투쟁의 선봉이 되어 5천 연세 여학우와 함께 하는 '총여학생회' 발족에 다짐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땅을 밟았기면
 바위 틈에라도 뿌리내릴 줄 알고
 몸을 잃었을 때는
 뿌리만으로 겨울을 난 풀잎
 길고긴 수난 헤쳐
 뗏목까지 시퍼런 꿈에 영원히 지킨 색깔로
 저 들에서 이룬 세월
 서로 싸우지도 않고
 서로 배신하지도 않았나니
 우리가 온 곳도 저 풀밭이며
 우리가 갈 곳도 저 풀밭뿐이다

풀잎 - 정규화 -

특집

총여학생회건설을 바라보며

- I. 총여학생회 필요성과 그방향
- II. 남녀공학의 실태
- III. 사회구조적 성모순에 대한 개괄

여학생부의 활동방향성에 대하여

-출여학생회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역사적으로 성의 분화는 계급의 분화보다 앞서서 발생하였으며 성의 분화가 곧 차별과 억압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계급의 발생과 더불어 억압의 구조로 전화되었고, 사회경제적 토대를 중심으로 한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여성의 억압은 역사진행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그 지위는 사회구성의 성격을 규정하는 사회적 관계들의 집중적 모순을 잘 나타내고 있다.

• 사회여성운동의 발전 방향

현재 한국사회의 여성모순은 성과 계급의 중층적 모순구조 위에 정치·경제적 대외종속 에 따른 민족 문제까지 결합되어 삼중적 억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여성운동은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성과 계급과 민족의 문제를 어떻게 통일시켜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현실인식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 때, 여성운동을 수행할 주체는 성과 계급과 민족으로서의 문제를 모두 짊어지고 있는 기층 여성들이며 이 기층 여성들에 의해 광범위한 대중적 요구가 수렴되는 대중 조직 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기층의 생존권 확보 투쟁과 여성의 독자적 요구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철폐하는 운동과의 통일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정치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된다고 보겠다. 현재적 수준에서 전체적인 현실인식과 주체의 설정은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과제를 설정함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인텔리 여성에게 기층 여성 운동의 나아갈 이념적 좌표를 이론화 하여 이에 봉사·헌신할 과제가 부여된다. 이것은 성과 계급의 문제를 어떻게 통일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민족해방을 달성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를 철학적, 역사적, 사회구조적으로 해명하는 문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텔리 여성들에 의하여 주도된 사회여성운동은 초기에 여류명사들에 주도되어 권력과 결탁하려는 무이념적 이용적 성격과 사회운동의 보조적 성격으로 나타났고 그들의 정치문화란 초보적 문제제기로서 제도권 내에서 부분적인 법률의 개정이나 시혜적인 청원을 통한 동등권 보장 등을 위주로 전개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초보적 단계를 거치면서 점진적 발전을 거듭해 나오면서 기존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올바른 여성단합투쟁, 그릇된 여성관의 극복, 여성운동에 대한 교육실시 등으로 사회구조적 모순과 맞서 싸워나 가며 여성차별의 문제를 전체 사회운동의 일환에서 파악, 집적하여 사회구조 변혁의 과정에 여성들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싸워나가는 것이 바로 사회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이라는 일정한 개념정립을 해나가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사회운동 발전의 반영이며 80년대를 전후로 많은 여성운동 단체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공개단체는 주로 여성운동의 본질에 대한 연구와 계몽에 주력하면서 여성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을 지원, 사회 전체의 정치투쟁에 동참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청량리 경찰서 여대생 추행사건('84), 여성유권자 선언('85), 여성조기 정년제 철폐운동('86), 부천시 성고문 사건('86), 결혼 퇴직 강요 철폐 요구 사건('87)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긍정적인 점은 구체적인 탄압사건을 계기로 문제해결에 관한 지속적인 책임있는 자세를 관철해 나가는 과정과 싸움의 일정한 성과를 획득, 축적함으로써 여성의 각성과 투쟁의지를 상승시킨 점이다.

그러나 그 활동의 한계점은 광범위한 대중에 의거한 대중의 요구, 지향을 반영, 실현해 낼 수 있는 대중조직의 부재와 인텔리 출신 활동가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까닭에 일정한 관념성과 대중으로부터의 유리를 드러내었다. 여성문제는 상당히 폭이 넓고 관심이 다양한 대중을 상대로 전개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사회여성운동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 인텔리 출신이 전반적인 사회모순에 대한 의식적 자각과 더불어, 올바른 이념정립과 실천적 방향 제시를 해 들어가야 할 역사적 임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사회 발전의 방향에서 인텔리 여성들의 위치와 역할이 올바르게 규정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계기로 의식적 각성과 단결된 힘을 자각하여 스스로의 이해와 권익을 스스로 쟁취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 대학사회에서 여학생들의 활동방향

우리 사회에서 청년 학생은 정치 지향적이고 사회의 부정의와 싸우며 민족적 위기 극복을 위한 자주화와 민주화의 주체로서 성장했으며 스스로 이러한 투쟁의 선봉대로서 자기의 위치를 다져왔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태어날 때부터 여성으로 키워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개척하려고 보다는 가정, 결혼 등 극히 부분적이며 개별적인 영역만을 사고하도록 강요받아 왔으며 의존적이고 비 주체적으로 성장하였다. 하여, 여학생은 학생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사고하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강요된 모습을 먼저 생각하며 그 속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짙다. 이로써 여학생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기 보다는 집안 태두리내 존재로서의 여성의 모습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여학생들은 이 사회의 고급 인력으로서의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단지 남녀 성구분이 성차별로 연결되는 모순에서 벗어나 능력을 개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여학생은 남학생과 동등한 입장에서 의무를 책임있게 수행하고 자신의 권리주장도 할 수 있는 분명한 태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여학생들도 남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끈기와 저력, 투지력을 갖추고 있으나 사회화의 과정에서 이런 성품은 남성의 것으로 인식되고 길들여진 까닭에 독자적 결정능력이 부족한 존재로 잘못된 인식을 계속 받게 되는 듯하다. 이제 여학생들은 여성으로서 나약하고 남성에 의존해야 하는 존재로 보호받기 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대한 인간적 대우를 차지하고 남녀가 동등한 인격적 관계에서 사회를 구성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는 발전하고 이에 따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도 남녀동반자시대에 적응하며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책임져 나가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학사회에서의 여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력 능력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고, 묶여있는 자신의 자주성을 발양시켜 자신의 이해와 권리를 조직화할 필연성이 존재한다.

주어진 공간의 작은 싸움을 통해서 비로소 큰 싸움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이 때, 여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수립, 결집해 내고 적극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학생들의 독자적 자치기구이다. 이 기구는 여학생들로부터의 분리를 극복하고 모든 실천적 방법들이 여학생들에게 공인, 공유되어 스스로 의식되고 실질적 세력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여학생들이 놓여진 가까운 생활주변에서부터, 일상생활의 작은 일에서부터 인식 고양과 참여를 유발시키고 이 성과는 조직적으로 수렴되어져 전체적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청년학생으로서의 보편적 모습과 함께 여성으로서의 특수한 모순을 담지하고 있는 여학생들은 스스로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이익을 옹호, 발전시킬 수 있는 자신의 기구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대학사회 안에서부터 여성의 생활상의 이해와 권익, 구체적인 생활조건 개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타파해 나가는 학원민주화와 사회민주화의 구체적 노력을 해나가는 것은 여학생들의 주체적 참여와 실천을 유발하는 실현가능한 권리쟁취 투쟁일 것이다.

대학사회는 여성 인텔리의 직접적 배출기관으로서, 사회구조적 모순과 여성모순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공유하고 이념적 토대를 구축하여 모순극복의 총체적 의지를 키워낼 수 있는 확보된 공간이며, 어느 정도는(여타의 사회공간보다는) 자유롭고 활발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1학기 여학생부 활동보고

지난 1학기 여학생부 사업은 그동안 총학생회 집행부로서 가지는 여부의 존재를 여학

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함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단대별, 과별 소모임이나 study-group의 활성화를 꾀하고, 여성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을 통하여 이후로도 적극적인 여성활동을 하고자 하는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 작업 (~3월말)

이 조사를 통해 여학생부에 대한 여학생들의 인식의 정도와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의 정도를 파악해 내려고 하였으나 설문지의 대체적인 내용이 남녀공학 내의 전반적인 여학생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서 구체성과 목적성이 부족하였다. 직접적인 활동의 근거를 찾지 못한 소모적인 조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또한, 많은 학생들에게 들려지지 못하여 통계적인 자료로서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상의 과정속에서 설문지 조사의 전문성과 진지한 방향성 모색이 시급하게 제기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 위한 체계적인 단대별, 과별의 진행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2) 문무대 방문 행사 (4월 6일~4월 13일)

학생 군사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남학생들의 전방, 문무대 입소기간 동안에 여학생들은 학사 일정의 아무런 대안책이 없는 공백을 맞이하게 되고, 전체적인 대체 프로그램도 없이 개인적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여학생부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적극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문무대 방문을 기획하게 되었고, 3회의 세미나를 통해 조국의 분단 현실과 학생 군사교육의 본질에 대한 기본 인식을 공유한 후 방문을 하려하였다.

하지만 사전에 남녀학생들에게 문무대 방문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여, 여학생들도 기본인식의 공유와 문무대 상황에 대한 경험의 부재로 남학생들은 무관심했고 여러가지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단지 견학의 차원에 머물고 말았다. 이 기간 동안에 여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현실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창조적 대안이 더욱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3) 연세 여학우 대동의 밤 (5.21 (목) 4:00 무악극장)

「겹절을 벗는 아픔을 딛고 하나되어 나아가리」라는 구호 아래 이루어진 문화행사로서 함께 모여 행사를 준비함으로써 결속을 다지고 말 그대로 대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이 행사를 통해서 이후에 각 단대나 과 씨름의 여학생 활동에 도움이 되고 활동이 부재한 곳에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씨뿌림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행사가 기획, 집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여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했고 각 단대나 과, 씨름의 사전 준비와 지원이 부재했다. 또한 행사진행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광범위한 여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과정들을 평가하면서 몇가지 반성

과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4) 최루탄 추방 운동 (6월 중순경~7월 말경)

'이한열군 사건'을 맞으면서 결정적으로 사회문제화 된 최루탄 추방에 관한 문제제기와 실천적 극복방안이 「여성단체연합」 주관으로 진행되어 갔다.

이것은 최루탄이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임신부의 경우 태아에 극심한 악영향을 끼치고, 인체 건강을 손상시키는 사회의 공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며, 또한 이 땅의 아들·딸을 다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데 대한 어머니들의 아픔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연세대에서는 여학생부가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갔다. 최루탄 피해에 대한 폭로, 최루탄 추방 서명운동, 최루탄 추방 손수건 판매를 통한 선전작업, 최루탄 생산업체인 삼영화학과 한국화학에 항의전화 걸기, 한국화학 계열인 '빙그레' 불매운동 및 스티카 홍보작업 등을 해나갔다.

그러나 그 실천방안들이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단시일에 가능한 문제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중도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있어 많은 여학우들을 동참, 앞장서게 할 수 없었으며 사적인 실천의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큰 행사의 준비와 집행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여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도모했는가? 얼마나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가? 여성활동가들을 발굴해 내었는가? 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업은 단절적인 행사 위주로 진행되었고, 이것마저도 여학생들에게 널리 확산되지 못하였으며 여학생 부원은 너무나 소수로 머물러 있었다.

또한, 총학생회의 집행부로서의 하중은 애초부터 5천 여학우들의 대표성을 상실한 채 존재해 온 여학생부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나타내주고 있었다.



I. 총여학생회 필요성과 그방향

총여학생회의 필요성과 그구성방법

총학생회의 집행부는 총학생회의 사업방침을 각 부서의 독자성에 맞추어 역할 분담되어진 집행체계이다. 이에 여학생부도 학생회의 집행단위로서 여학생들의 특수성에 맞게 총 학생회의 사업방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총학생회의 활동대상이 2만 연세인인데 비해 여학생부의 활동대상은 5천 여학우이며 이들의 이해는 2만 연세인의 이해에 융해된 것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여성임으로 인해 받는 특수한 존재속에서 생기는 독자적 이해가 있다.

예를 들면 총학생회가 2만 연세인에 근거하여 활동을 잘해낸다 하더라도 공과대학 학생회의 이해와 요구는 독자적 영역으로 남게되며 이의 해결을 위해 공과대학 학생회와 그 대표자인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필요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런데 기존의 여학생부 활동은 여학생부가 독자적으로 가져야 할 자기 활동의 영역과 총학생회 전체활동과의 차별성을 피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자기활동을 해나가기에는 벽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그것은 총학생회가 사회 민주화에 중점을 두면서 정치편향적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인해 이러한 사업방침을 여학생들에게 관철시키려는 여학생부의 활동 또한 정치편향적일 수밖에 없었던데 기인한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문제를 여학생들의 이해와 결부시켜 재해석하고 독자적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그것은 여학생부가 집행부로서 있는한 일정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두가지 점에서 지적해 보면 첫째가 여학생활동의 장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총학생회 집행부는 매년 새롭게 뽑히는 총학생회장에게 의해 그 부서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임명하여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학생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여성문제에 깊이 고민하고 그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여학생이자 여학생을 대상으로하는 활동에 경험이 있는 여성 대 중활동가이어야 한다. 그러나 남녀공학인 연대내에서는 이러한 활동의 경험과 이론적 학습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없음으로 인해 이러한 인물을 선별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고 설사 이러한 인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학생 활동이 여학생부장이 어떠한 인물인가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를 도와 함께 조직적으로 일할 여학생활동가가 보조해 주어야 한다고 했을 때, 매년 구성되는 총학생회 여학생부 활동가를 구조적으로 배출해내는 여학생 활동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여학생 문제가 한국사회의 구조속에서 여성이 받는 억압구조에서 기인하며, 여학생들이 받는 비민주적 사회 종토속에서의 갈등을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은 여학생들과 함께 하는 활동 공간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총학생회 한 부서의 장이 독자적인 대중집회를 갖는다는 것은 그 구조적 한계상 불가능하다. 한 번의 집회를 준비함에 있어 그 속에 담아야 할 내용을 갖추고 이를 홍보하고 그 결과를 집행하려면 집행체계가 꾸려져 있어야 하는데 총학생회 사업의 내용이 항상 여학생들의 이해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며 총학생회 부서의 각각의 독자성과 업무의 과다함은 특별히 여학생들을 사고의 중심에 놓고 활동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타부서에 비해 여학생부는 그 활동의 영역과 대상이 독자적이며 특수하기에 여학생부의 독자적 집행체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자기체계를 가진 여학생회로서 여학생회는 여학생의 특수한 조건에 기반하여 그들의 지향에 입각한 스스로의 정치적 경험을 조직할 수 있도록 추동하고 그 집행단위를 통하여 여학생들의 의사를 수렴, 결집해내고 이에 근거하여 통일된 의사를 집행해 나갈 수 있는 대표적 기구이다. 따라서 조직은 여학생들 스스로 직접선거를 통하여 그들의 대표자로서 대표부를 구성하고 이의 대표성과 자주성을 발현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직접선거란 대중의 정치적 의식이

실천적 모습을 통해서 검증되어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선거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길들여진 여학생들의 정치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사회정치적 교육의 장을 형성하며 민주주의의 초보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물론, 단 한번의 선거를 통해서 여학생들이 담지하고 있는 모순의 고리들을 모두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끊임 없는 교육적 자각과 선전등을 통하여 행동화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장대한 과제이지만 선거는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첫번째의 관문인 것이다.

즉, 여학생들은 이러한 실천을 통하여 세워진 지도부를 신뢰하고 스스로의 이해와 권익을 위해 스스로의 활동을 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총학생회가 2만 연세인을 대표하는 기구로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5천 여학생들의 특수한 이해와 권익은 여학생회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를 통한 여학생회의 대표성과 자주성의 발현은 자체의 집행단위를 가짐으로써 여학생 활동공간의 강화 및 현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여성모순을 인식해 들어가는 구체적인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총여학생회는 어떻게 건설될 것인가?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된다. 이 문제의 본질은 여학생 자체가 학생이라는 보편성과 여성이라는 특수성이 동시에 작용하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여학생운동은 단순한 성적 모순의 해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인으로서 극복해야 할 보편적 모순해결을 위해 전체 학생회와 적극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학기 여학생부의 활동방향성

그러나, 이상과 같이 여학생부로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총여학생회를 건설하는 것은 아직은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총여학생회는 단지 그 이름만으로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여학생들의 특수성을 자각하여 여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조직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속에서 정치적 경험을 쌓고 스스로의 힘으로 단결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 학기내에는 여학생부의 존재유무조차도 무관심했던 일반학생들의 의식과 참여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내며 건강한 여학생부의 활동을 모색하고 그러한 활동의 모습을 전달해내는 장으로서 '총여학생회건설준비위원회'의 활동이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총학생회나 단대학생회와 분리된 별도의 활동 체계로서가 아니라 모든 활동은 학생회의 총화로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여학생활동은 전반적인 학생활동의 성숙정도와도 합일하는 중요한 변수이고 점차 많아지는 여학생들이 대학속에서 개인의 문제 나아가 사회문제, 역사속에서 주체적 모습으로 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은 그 대체적 활동방향을 제시하겠다.

1) 선거방법

ㄱ) 각 단대여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단대여학생회장을 선출

자격-학회장과 동등, 운영위원회 구성원

단, 가정대 간호대는 단과대 학생장이 겸임하거나 부학생장을 둔다.

ㄴ) 전체 여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총여학생회장을 선출

자격-단대장과 동등, 상임위원회 구성원

ㄷ) 운영

총여학생회장과 단대 여학생회장 산하에 각기 3~5개의 집행부서를 두고 예산을 별도로 집행한다.

ㄹ) 예산

총학생회에서 일정 비율로 총여학생회에 이관한다.

단대 여학생회에서 일정 비율로 단대 여학생회에 이관한다.



이상에서 총여학생회의 필요성과 구성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총여학생회의 역할에 대해 4가지 부분에서 지적해 보자.

첫째, 이것은 현재 남녀공학내에서의 대부분의 교육과 학내활동의 공간, 사회진출준비 등이 남성위주의 사고방식에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잠재적이면서도 농후하게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공학의 여학생들은 여자대학생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여성문제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미약하며 사회진출에 있어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 이것은 교육종도일반에 스며있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 여학생과 남학생의 사고방식 등에 기인한 것이 많다. 따라서 여학생부에서는 이러한 남녀공학내의 문제점과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내고, 구체적인 여학생들의 이익과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의 의사를 수렴해내어 적극적인 권리쟁취운동을 해나갈 것이다. 남녀공학내의 비좁은 여학생의 자리를 점차 확보해 나가면서 여학생들의 주체적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킬 것이다. 여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남녀학생 공히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천적 활동을 함께 해나가는 것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위의 문제에서 파생되어지는 것으로서 여학생들의 자치활동공간이 부족하고, 이 공간은 단순한 잠자리나 오락, 낮잠으로 소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학생들만이 담지하고 있는 모순을 진취적으로 고민, 활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장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논지당, 도서관 휴게실, 학생회관 2층에 여학생 휴게실, 몇몇 단대의 휴게실 등이 있으나 이러한 여학생공간들이 알뜰하게 활용되지 못한다 많은 학생들의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주로 텅비어 있거나 적절치 못한 비위생적인 공간도 있다. 따라서 여학생 자치활동 공간으로서 이미 주어져 있는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개조 활용해 내고 여학생공간이 없는 각 단대에는 여학생공간을 만들어내고, 각종의 세미나, 문화행사 기획등 각 단대별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해나가는 등 공간활용과 복지문제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셋째, 여성문제는 어느정도 진보적인 대학사회보다는 오히려 사회구조적 모순속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정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고급인력으로서의 여학생들속에서 그러한 노력들이 주도적으로 모아질 때보다 바람직한 여성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종의 소규모 모임이나 그룹, 단대별 여학생부를 적극 지원, 여학생 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성모순의 정확한 인식을 공유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여학생들의 문화적 생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여학생취업에 있어서 사회에 누적된 성차별(구체적으로는 여성차별취업구조, 조기정년퇴직제, 결혼퇴직제, 임금의 차별, 업무의 불평등, 성폭행등...) 구조에 대한 토론과 대안책 모색,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숙한 성교육과 '이성관계'에서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여성관의 올바른 정립을 통한 결혼관에 이르기까지 토론을 조직화하도록 하겠다.

네째, 기존의 사회운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중산층 여성단체들의 활동가와 여성노동 운동가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실천적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한다. 우리사회 모순의 직접적 담지자인 여성노동자·농촌여성·도시빈민여성의 생활적 궁핍함과 최후의 억압구조로 착취당하고 있는 현장을 함께 느끼면서 그들의 현실극복의 몸부림에 함께 동참하며 실천속에서 결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회여성운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이후 사회에 진출할 여학생들의 현재적 모습과 극복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난 1학기 여학생부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그 활동의 한계점과 극복대안으로서의 총여학생회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2학기 여학생부는 적극적인 자기변신의 노력을 나갈 것임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반의 활동들은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많은 문제점과 한계에 대하여 올바른 비판과 충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II. 남녀공학의 실태

— 조혜정 교수의 글 부분 발제 —
〈남녀공학의 문화〉

〈입학쿼터제〉

여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음대는 1947년도부터 남녀 성비를(4:6 또는 5:5로) 고정화시켜 남학생을 두둔해 왔다. 이러한 쿼터제는 첫째로 남녀비율이 비슷해야 하는 성악(혼성합창경우)이나, 남성이 더 잘할 수 있으리라 간주되어 온 오케스트라의 특수 악기 부분(특히 금관악기) 또는 작곡 등에 남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였으며, 둘째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생을 통하여 전공을 살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음대의 발전상 불가피하게 남학생 선호제도가 생겨난 것이라 한다.³⁾ 뽑는 방식은 우선 실기에서 실제 정원보다 많은(130%정도) 학생을 뽑고, 그 수준에 들어온 남학생의 경우는 학과성적이 좀 못해도 뽑는 식으로 하여왔다. 이러한 성구별적 입학제는 결국 음악은 “여성적”이라거나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의 산물이자, “여자는 결혼하면 그만이다”라는 학생들의 취업관의 산물이다. 즉, 음악을 사회적 삶과 동떨어진 것, 또는 여유있는 여성들의 취미활동 정도로 인식케된 사회적 풍토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러한 인식의 근원에는 성에 따른 역할과 기질에 관한 기존의 관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주3) 이제까지 여학생의 9할 정도가 결혼이나 출산을 전후하여 직업을 그만두는 추세였다고 한다(박재일 음대학장과의 면담).

〈결혼퇴직 각서제〉

직원채용(전문적인 도서관사서, 카운셀러포함) 때, 여성에게 결혼 6개월 이내에 직장을 그만 두겠다는 각서를 받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 「각서」는 “본인이 귀교에 채용되면 귀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결혼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사퇴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한다”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관행은 시작이 언제인지 찾아 보기 힘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온 관행이라고 하나 1976년 6월에 발간된 규정집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여자사무원 및 용원(임시포함) 채용 및 복무에 관한 내규〉

제1조 여자사무원 및 여자용원(임시포함)의 채용은 만 25세 미만의 미혼자에 한함. 단, 전문직에는 차한에 부제한.

제2조 현재 복무중인 여자사무원 및 용원은 결혼후 6개월까지로 복무를 제한함.

제3조 본 내규는 196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문서로 미루어 결혼퇴직제가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체계적으로 실행된 것은 1968년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도서관 사서의 경우, 1968년 당시 기혼자로 근무하던 여성들은 현재도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채용된 여성들은 석사학위가 있는 경우라도 결혼퇴직을 해야했다. 그러나 이 내규는 올해(1986.3) 종합적으로 체계화시켜 만들어진 직원인사규정집에서는 삭제되었다. 기획과장에 의하면 그 전의 규정집은 공식내규집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비공식적 지침서였고, 올해 만들어진 것이 최초의 공식적 규정집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 새 규정집에는 남녀불평등 조항은 없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서제는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라 하겠다. 각서를 받는 담당부처인 총무처에서는 각서제를 없앨 것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한다.

고용에 관한 이러한 관행은 단순한 성차별적 제도의 잔재일 수도 있으나 또한 인건비와 관련된 경제적 변수가 작용하는 문제이기도 하여 원리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학의 운영방식은 대학문화의 합리화와 직결된 것으로, 단순한 “살림살이”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의 내규규정의 변화는 이런 면에서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나마 행정적 보수성의 본질을 감안한다면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교련과 체육〉

교육과정상에 있어 여전히 제도적으로 남녀를 갈라 놓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체육과 교련에 관련된 경우이다. 많은 학생들은 체육에서 남녀를 가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포크댄스나 탈춤 등은 같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교련과 이와 관련된 군사훈련(문무대 훈련 등)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엇갈린다. 국토의 방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학생도 마땅히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견, 집단적 훈련의 기회로서 여학생도 교련이 필요하다는, 성구별을 없애자는 시각에서의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군대훈련이나 교련을 해낼 힘이 여성에게는 없으며, 특히 군사와 관련된 것은 여성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성구별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다. 더 나아가 현재의 교련 내지 군사훈련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아직은 여성의 참여여부가 논의될 계제는 아

나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로서 매우 복합적 의미를 띠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과목에서는 남녀유별의 원칙이 여전히 고수되고 있다는 현상만을 지적하는 정도에서 그치고자 한다.

여학생이 교련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생활과 교양”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과목은 최근 많은 남학생들도 자진하여 강의를 듣게 될 정도로 인기있는 과목으로 변신을 하였다. 이 과목이 토론위주의 형식으로 개선될 것과 필수로 되지 않은 의과대학등에까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생활과 교양”이라는 명칭 또한 강의 내용과 동떨어지므로 교과서의 제목처럼 “남녀평등과 인간화” 등의 명칭으로 바꾸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었다.

〈 장학금, 조교배정상의 차별 〉

주로 여학생 비율이 매우 높은 과에서 나타나는 차별로 남학생을 우대하는 경우이다. 남학생을 길러주기 위해 장학금이나 조교배정 등에서 차등기준을 둔다는 것이다.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① 취업 의뢰시 남학생만을 원해오는 취업구조상의 남녀불평등, ② 여학생들이 학업을 쉽게 중단하고 직업의식이 약한 점 때문에 즉 취업과 학문발전을 위해서 이런 조치는 얼마간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 문제가 일차적으로 성차별적 취업구조와 직결되어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일부 교수들이 여학생들이 다수가 되는 것을 매우 문제시하고 들어온 여학생들을 잘 키워보려는 생각보다는 성적이 좋지 못한 남학생이라도 꼭 남성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을 고수하기 때문에 지속되는 면도 간과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여학생 수가 적은 과의 경우는 자연히 남학생 위주로 강의 등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위와 같은 차별적 관행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여학생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밀어주며 사회의 편견과도 맞서는 면을 보인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이공대의 경우 여학생을 받아주지 않는 회사에는 차년도에 다시 학생 추천을 해주지 않는 등 압력을 가하는 교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인력의 수요가 많은 소수의 과에 한정될 뿐, 기타 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 과대표 〉

최근 10년내에 과대표는 남자가 하고 부대표는 여자중에 뽑는 제도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의 수가 10~20%를 넘는 대부분의 과에서는 성과 무관하게 과대표가 선출되고 있다.⁴⁾ 작년에 어느 과에서 여학생이 과대표가 되고 남학생이 차점이 되자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욕을 하였다하여 크게 웃음거리가 되었었다. 그 이후로는 그 과에서

도 아무런 문제없이 여학생이 과대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일단 여학생 과대표가 선출되어 일을 처리해 냈을 경우, 기존관념은 허물어지고, 그 이후로는 여자과대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 단지 남학생이 대다수인 과에서 여학생이 과대표가 된 경우 남학생들의 관심거리를 충분히 알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때문에 대표가 된 여학생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여학생이 대다수인 과에서 남학생이 되는 경우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문제일 것이다.

한편 여학생이 과대표가 된다는 것이 대단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현재로 과대표라는 것이 약간의 심부름을 하는 것 정도이지 별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주4) 남녀가 적당히 섞여 있는 편인 문과대학의 경우, 모든 과에서 여학생과대표가 선출된 적이 있었고 이런 점은 이미 논의거리가 아니다.

〈 성편중학과 〉

성비가 극히 편중된 학과에서는 공학적 분위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간호대와 가정대는 여성편중학과로 그리고 상대, 공대, 법학과 등은 남성편중학과로 남여학생의 상호작용의 기회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특히 여학생이 절대다수를 이루는 가정대, 음대, 간호대의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대학의 주변적 위치내지 자기 대학을 보는 타대학인들의 편견이 시정되어야 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가정대는 자신들을 “가정”과 결부시켜 비전문적이고 교양적인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고쳐져야 한다고 하며 그런면에서 대학이름을 “생활과학대” 정도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음대 여학생은 “사치한다” “책을 안 읽는다”는 등으로 모든 음대생을 매도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예술가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기를 원했다.

간호대는 최근 상당히 개선된 편이긴 하나 아직 의과대학과의 관계에서 차등이 있다고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일반 직업세계의 의사와 간호원 간의 차등적 위치와 대우에서 비롯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언어를 통해 본 공학문화 〉

공학언어중 특히 호칭을 분석하면 현재 공학내 상호작용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된다. 남녀공학이 대중화되지 못한 60년대까지 동성간에는 “언니”와 “형”이, 이성간에는

동기와 선후배를 막론하고 성까지 붙여서 “○○○씨”의 호칭이 통용되었다.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남녀 상호작용이 잦은 과 또는 씨를 등에서 이성간에 “형”의 호칭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동기간에 반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여학생이 남학생 선후배를 “형”으로 부르고 남학생은 여학생 선후배를 “언니”, 또는 “누나”로 부르는 특이한 언어문화가 창조된 셈이다. 여학생수가 크게 늘어난 80년대에 들어서서 동급생(3수까지)끼리 그리고 후배에게는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쓰는 것은 거의 일반화되었다. 이성 선후배를 부르는 호칭은 “형”과 “누나”로 정착되는 듯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학생이 남자 선후배를 “오빠”라고 부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남학생 후배의 경우 “누나”로 부르기가 어색하다고 느껴면 “선후배”, “언니”, “마담” 등의 호칭을 가끔 농담 섞인 어조로 쓴다고 한다.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는 “저기”라든가 안 부르는 식으로 해서 넘어간다.

이런 호칭사용의 변화는 공학문화의 변화를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데, 즉 남녀관계가 소원했던 초기 공학시기에는 공식적 차원에서 상호작용만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남녀는 감정적으로 친밀하지 않았으며 서로 워낙 거리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씨”를 붙이고 존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번째 단계는 “형”이라는 호칭이 새롭게 대두된 단계로서, 대개 토론서클이나 등산 등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고된 훈련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필수로 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남녀 유별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관계인 이성간의 동지, 동료내지 선후배 관계를 어떻게 범주화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채택된 용어가 바로 성과 무관한 “선후배” 또는 “형”이었던 것이다. 특히 이때는 여학생이 기존 남성집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선후배를 지칭할 때 통용되어온 “형”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형”의 호칭이 널리 사용된 당시 대학의 서클내 상호작용은 서클의 기본 성격을 지키고 서클 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반면 성의 변수를 무시하고자 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때 여자 선후배는 “선후배”, “누나”, “언니” 등으로 불리웠다.

“오빠”라는 호칭이 새롭게 부각된 세번째 단계는 여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고 남녀간의 상호작용이 더욱 빈번해졌으며 학생운동은 더욱 치열해진 상황적 특징을 보인다. 상급생 이성을 “오빠”, “누나”로 부르는 남녀공학 중학교 출신이 늘어난 것, 여러 종류의 비운동권 서클이 생기고 기독교 계통의 서클에서는 “오빠”, “누나”가 일반화되어 온 배경도 이러한 호칭변화와 관계가 된다. 대체로 “형”의 호칭을 쓰는 여학생과 “오빠”의 호칭을 비교해 보면 “형”은 주로 주어진 목적과 일에 적극 참여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기대되는 서클의 회원, 그리고 자신을 구태여 여자라고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은 “마지나 입고 쫓아 다니는” 그리고 성격면에서 “스스럼없는” 타입의 여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편이라고 한다. “오빠”라는 호칭은 최근 저학년간에 부쩍 사용하는 추세인데, 서클이 아닌 개인적 관계로 만난 경우, 같은 과에 다닌다는 인연등으로 상호작용하는 관

계에서 흔히 쓰인다. 주로 윗학년 남학생들이 왜 여자가 “형”이라고 부르느냐고 반대해서 “오빠”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남학생들은 왜 여성이 남성적 호칭을 따라하느냐면서 “형”이라고 불리우는 데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오빠”라고 부르면 더 친근감이 가고 좋다고 한다. 여학생간에도 “형”의 호칭은 여자의 입장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여성 주제성을 강조하는 면에서 “오빠”라고 부르는 게 정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거북하다는 여학생, 그리고 듣는 편에서 “정그림다” 또는 “너무 이성관계임을 드러내어 싫다”고 하는 남학생들도 있다. 한편 어머니들은 딸들이 전화로 “오빠, 오빠” 부르며 “남학생에게 너무 친밀하게 굴기 때문에 탈선할 위험성까지 느낀다”고 염려하는 기색을 나타내고 있다(그런 경우 “나는 그런 아들 둔 적 없다”는 등으로 그런 호칭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딸은 “어머니가 구세대”라면서 말을 안 듣는다고 한다).

이런 가족적인 호칭의 확대사용이 대학생간에 일반화되는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는 상호작용의 모델이 여전히 가족적 모델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을 평등한 공학문화를 창조해 간다는 면에서 평가할 때 토의되어야 할 점은 많다. 우선 “오빠” 또는 “누나”라는 용어로 불리울 때 그 용어가 갖는 어감이 상당히 상호작용을 규제한다. “오빠”는 “여동생”을 보호하며 무엇을 잘못해도 따지지 않고 어려운 일을 대신해 주며 귀엽게 보아주고 넘어가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누나” 역시 “남동생”에게 점심도 사주고 허물없이 굴어도 봐주어야 한다. 열띤 학술토론을 하다가도 누나는 여자니까 잘 못해도 되고 대신 뒤치다꺼리를 잘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누나”나 “오빠”에게는 밤늦게 아무 때라도 전화를 해도 된다. 즉, “오빠”에게는 밤늦게 아무 때라도 전화를 해도 된다. 즉, “오빠”, “누나” 등의 가족호칭의 확대 사용은 남녀가 상호작용에 있어 기본적 예의를 무시하고 “가족모델과 나이 차이를 빙자로 개긴다”는 점과 남녀의 구별이 더욱 강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자 후배가 남자 선후배를 부를 때는 약간은 도전적인 인상을 주지만 대등한 관계라는 느낌을 갖는데 “오빠”라는 호칭이 일반화되면서 서클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학생들이 힘든 훈련을 않고 “어린 누이동생”으로 대우 받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녀대학생간의 상호작용이 빈번해지고는 있는데 아직 이들이 서로 친해지고 싶은 욕구에 비해 어떻게 친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알고 있지 못하여 이러한 혼란을 가족 모형의 확대로 나름대로 해결해 가려는 움직임이 보이니 이 해결책은 최선의 대안은 아닌 듯하다.

Ⅲ. 사회구조적 성모순에 대한 개괄

총여학생의 구성에 앞서 그 활동의 이념적 좌표를 명확히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깊이가 얇고 고민이 깊지 못했던 까닭에 그것이 실천적 고민에 근거한 적극적 문제제기가 되지 못하고 막연하며 원론적인 제시에 그치게 됨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후배들의 여성해방운동의 확신에찬 출발의 시작에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성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민족통일의 과제를 안고있는 제3세계 분단국으로서의 한국 상황속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우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운동임에 분명한 여성해방이 어떻게 하면 성모순, 계급모순, 민족모순의 과제가 중첩되어져 다가오는 엄청난 질곡이 인간해방의 대전제 속에서 통일되어 극복 가능한지를 밝혀보겠다.

1. 여성모순의 기원과 본질

인간의 생활이 수렵과 어로 및 채취에 의존하고 있던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최초의 성별분업은 생산력을 둘러싼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 역할 분담이었다. 이 생물학적 역할분담은 자연스럽게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인 노동과정에서 남성은 수렵과 같은 활동적인 노동을 담당하고 여성은 식물채집 등의 비교적 덜 활동적인 노동을 담당하는 분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때의 분업이 남녀 힘의 차이에 따르는 결과로 나타났기 보다는 오히려 당시에는 남녀간의 신체적, 근육골격의 차이는 거의 없었던 근거에서 단지 여성이 이전의 난혼 시기에 지속적인 임신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위험한 수렵을 하는 것보다 채취를 하는 것이 종족보존에 더 유리했을 뿐만 아니라 식물채취가 훨씬 안정적인 식량구입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분업이 생겨났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분업이 역사적으로 장기화되자 그결과 근육의 발달에 차이가 생기고 남녀간의 힘의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다. 즉 분업의 결과에 따른 힘의 차이가 생겨난 것이다. 이것은 여자가 본래부터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다는, 이미 상식화 되어있는 근거에 대한 부정적이게 됨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힘의 차이가 남녀간의 성차별로 존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생산력의 발전과 함께 남성이 더욱 우월한 생산도구를 소유하게 되어 남성활동에 의한 생산물의 양이 훨씬 많아져갔다. 잉여생산물의 축적이 가능해지자 사유재산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곧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오게 된다. 당연히 사유재산 소유층은 남성이었다. 그들은 부의 증대와 더불어 소유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세대적으로 유지시키려는 욕구를 갖게된다. 남성들은 당시의 모계혈통에 따라 수행되는 모권상속제를 폐지시키고 자신의 혈통에 의한 (남성의 혈통) 상속제의 성립을 요구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남

성에 의한 혈통확인이 전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사회제도 역시 남성우위를 반영해 부계를 통해서 혈통, 재산, 신분에 따른 특권이 계승되는 부계, 부권제(가부장제)로 바뀌었다.

정리해보면 원시공동체에 있어서 성별분업은 분명히 차이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영역상의 성별분업'은 남성이 생산력의 장악자로 발전하고 여성은 그에 의한 종속을 받아 들일수 밖에 없는 관계로 변화하는 차별적인 결과를 낳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계급은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유재산이라 하여도 그것이 계급의 생존을 영유하기 위해 피지배 계급을 소유하고 그에게 부속된 모든 것(피지배 계급 여성과 그 자녀까지)까지 소유하는 계급발생 이후의 것과는 구별되는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산도구와 적은 양의 잉여물의 사유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렇게 노동 영역상의 성별분업 구조는 당연히 생명 생산에 있어서의 성별분업의 구조와 맞물려 우월한 생산수단을 소유한 남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과의 관계는 가부장적 질서를 갖게 되어 지배와 종속의 역사가 시작되고 종속된 여성내부에서도 지배 계급 남성에 의한 분할 종속화가 시작된다. 사유 재산제로 인해 계급이 발생하자 여성내에서도 계급분화가 생겨난다. 지배계급 여성은 지배계급 남성의 사적재산을 상속시킬 상속자를 재생산하고, 피지배 계급 여성은 지배계급 남성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재생산 즉, 살아있는 노동력의 재생산(피지배 계급의 재생산)이라는 역할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계급 자체가 재생산 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 여성노동력이 지배계급 남성에게 수취되는 여성모순의 시발, 여성종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은 계급발생 이전부터 성에 의한 분업이 발생하였으며 최초의 1차적 분업이(성별분업)있을 후 2차분업(농업과 목축)이 생겨나면서 부터 생산수단을 소유한 남성에 의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여성에 대한 지배 즉, 가부장제는 생겨났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때까지 사회구조는 아직 공동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계급사회는 국가가 생겨난 시기에서 부터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을 때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게 된다.

그것은 계급모순이 해결되었다는 사회주의 혁명이 수행된 국가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여성들의 미해방된 모습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엥겔스가 밝힌 여성모순의 기원이 사유재산제도에 의한 계급관계 발생에서 부터 찾아야 한다고 한 것에서부터 기인한다면 그것이 엥겔스의 명제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인지, 그가 간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규명해 내야할 것이다. 이는 엥겔스의 해석이 자칫 '여성모순'이 나타나는 시기를 계급모순의 등장과 무조건 일치시켜 계급모순이 해결되면 따라서 해결되어지는 부차적 모순으로 이해되어 오류를 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왜 지배계급(생산수단을 소유한 자)이 남성이어야 하는가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오류는 여성모순을 지배계급 남성이 여성의 생물학적 열등을 활용하여

창조한 생산관계 속에서 부차적 모순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분명한 것은 '성별분업 구조'는 계급발생 이전에 생겨났으며 이미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 가부장제에 의한 여성억압은 시작되어 있었고 이것은 생산력의 발전에 조응하는 당연한 결과이었으며 계급이 발생한 이후부터 그것이 국가제도에 의해 구조적으로 정착되어 확고해진 것이다. 자세한 과정은 서두에서 지적했으므로 생략한다.

2. 자본주의 하에서의 여성모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기본적인 생산관계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이다. 이속에서 여성문제의 본질적 측면이 어떻게 형태변화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안에서 관찰되고 있는지 그 메카니즘을 살펴 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 하리라고 생각한다. 우선 이번장에서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부분에서의 자본주의 하에서의 여성모순을 살펴보기로 한다.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로 인해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는 끊임 없는 이윤창출과 이윤의 획득을 위해 노동자의 노동력을 수취하고 이렇게 축적된 자본은 소수의 자본가 계급에게 집중, 집중시키게 되면서 나타나는 계급대립이라는 자본주의의 내적모순, 즉 생명이 다해가는 자본제 질서를 유지, 온존시키고자 지배계급이 전통적인 여성모순(정치적, 법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성의 상품화 등)을 이용하여 여성노동력에 대한 가중된 착취를 감행하고 있어 여성이 바로 제국주의 최후의 식민지임을 느끼게 한다.

전자본주의 시기에는 가족이 사회적 부를 생산하는 경제단위로서 가족의 생계가 가장 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가족내의 성별, 연령별 분업에 의해 가족전체의 노동에 의하여 이루어져서 가족과 생산이 분리되지 않았던데 반하여 자본주의 체계로 이행되게 되면 재화를 생산해내는 상품생산 노동과 가사노동간의 구별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본주의에서는 가족구성원의 노동영역이 사회화됨으로 해서 가족의 경제적 기초는 임금의 형태를 띄게 된다. 그런데 여성에 의해서 수행되는 가족내에서 행해지는 '가사노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달하여 상품화된 노동영역을 재생산하는 역할 만으로 떨어진 가족영역 내에 남은 사회화되지 못한 사적노동으로서 무보수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가족의 역할인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결과물인 상품을 임금으로 구입하여 소비하는 곳으로서 자본과 가족은 이렇게 결합되어진다.

주*) '여성모순'은 기존의 '성모순' 혹은 '양성모순'이라는 용어가 자칫 남성과 여성의 성적대립을 의미하는 것을 피하고 '여성문제'이라는 용어가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성모순'은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는 사회, 경제적 모순의 총체'라는 의미로서 사용한다. 그러나 아직은 과학적인 정의가 내려진 용어가 아님을 밝힌다.

주**) '가사노동'이라는 용어는 아직은 그것이 노동영역에 대한 구분도, 노동성격에 대한 구분도 아니며 일정의 애매한, 비과학적인 정의라는 견해가 있으나 아직 대체할 만한 용어가 없으므로 해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달하여 상품화된 노동영역을 재생산하는 역할 만으로 떨어진 가족영역 내에 남은 사회화되지 못한 사적노동으로서 가사노동은 무보수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가족의 역할인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결과물인 상품을 임금으로 구입하여 소비하는 곳으로서 자본과 가족은 이렇게 결합되어진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주로 수행하고 있는 노동은 어느 영역이며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가족단위가 사회적 생산체계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노동영역과 노동성격을 구분해보자. 자본주의 하에서는 사회화된 노동영역과 비사회화된 노동영역 -가족단위내에서 수행되는 개별적노동, 그리고 사회화된 노동영역에서 행해지는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 사용가치 생산노동과 교환가치 생산노동으로 나뉜다. 그런데 가사노동은 사회화되지 못한 노동으로서 교환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며 개별적, 자의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한 이유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주변적노동으로서 존재하는 가사노동의 담당자인 여성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주변적, 이차적인 존재로 남게된다.

즉 여성노동이 생산수단으로 부터 완전히 분리됨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소외되고 차별적으로 고용되기 때문에 분배과정에서도 소외되고 차별받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는 상품생산 경제이기 때문에 생산노동은 사회적노동으로 전화하여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임금으로 지불되지만 재화를 소비하여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가사노동은 상품가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무보수 노동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편리한 가정용품의 생산이나 재생산노동의 사회화(탁아소, 세탁소, 가정부)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결코 가사노동 전체를 사회화 시키지 않는다.

가사노동 즉, 재생산노동의 일부는 사회적 노동으로 전환한 반면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개별노동 영역으로 남겨놓는데 그것은 자본의 이중성을 뜻한다. 재생산 노동의 일부를 사회적 노동으로 전화시키는 것은 여성노동력을 사회 밖으로 끌어내어 많은 직접적 이윤을 얻기 위해서이고 후자는 여성노동력착취(재생산 비용절감으로 인한 임금상승 억제)를 통해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다. 전자가 직접적 이익이라면 후자는 장기적이고 우회적이다. 게다가 생산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도 인격적인, 남성과 동등한 의미의 노동력이라기 보다는 노동자의 임금을 인하하기 위한 산업예비군으로 활용될 뿐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존속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건인 가부장적 가족의 역할은 첫째,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소비단위의 역할 두번째, 소비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재생산단위의 역할 세번째, 잉여가치 수탈대상으로서 여성노동력의 간접착취 제공의 역할 네번째, 노동의 유희분으로서 여성산업 예비군으로서의 역할 다섯째, 생명의 재생산을 통해 자본주의의 기본계급의 재생산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본과 가부장적 가족관계 속에서, 여성은 어떠한 억압과 착취구조를 갖게 되는가를 밝혀야 하는 것이 남는다. 그러나 우리의 논의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체계 속의 노동하지 않고 기생하는 소수의 여성은 제외하기로 하고 또한 가사노동만 참여하면서 상대적으로 생활이 안정되어 직접 노동하지 않고 있는 중산층은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러면 논의는 주로 자본주의에 의해 창출된 여성 노동자의 수탈구조에 맞추어 진행하게 된다.

임금은 노동력에 대한 댓가 즉,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비용과 다음 세대의 노동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인데 자본은 이를 착취하면서 자본축적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그의 가족인 여성은 값싼 노동력으로 자본가에게 고용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자본가는 남성에게 지급되는 임금에서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댓가는 전혀 지불하지 않고, 여성은 오로지 남성의 부양가족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하면서 여성본연의 모습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강요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저임금인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가 노동자 가족 전체를 고용하더라도 그때 지불되는 임금은 남성 노동자 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당연한 몫을 가족 전체의 임금으로 나누어주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형식상인 가족수당일 지라도 남성노동자가 받는 임금과 여성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그리하여 가정내에서 경제권도 차별적일 수 밖에 없을 뿐더러 기혼 여성노동자가 생산노동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도 파출부를 두거나 탁아소를 이용(거의 불가능하다)을 하려고 하더라도 저임금으로 임무도 못내며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차지로 남겨져 자본에 의해 이중의 착취를 당하게 된다.

그러면 여성에 대한 이러한 억압구조가 악순환되는 원인은 어디에서 근거하는가? 그것은 여성이 사회화된 노동으로 생산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가족구조가 붕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본에 의해서 유지, 온존, 확대되는 것은 여성의 사회노동에의 참여가 여성이 스스로 정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가의 이해가 끊임없는 초과이익의 확대에 있음으로 해서 생산비용 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윤창출의 근원인 값싼 노동력 창출에 대한 요구는 절대적이다. 이에 당연히 지불되어야 할 가족부양 임금을 제외한 저임금으로 남성노동자를 고용하여 필연적으로 기혼여성 노동자를 생산으로 끌어들이어서 그들이 남성의 부양가족이 있을 수 없다는 억지로 여성에게 기아임금, 차별임금을 강요한다. 이것은 미혼 여성 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이어서 그들에게는 숙련된 노동자가 될 기회를 박탈하고(단순 노동작업에 고용하여 승진의 기회를 박탈, 결혼 후 일단 퇴직) 기혼여성은 미혼여성의, 여성은 남성의 임금 인상 억제요인이 되도록 하거나 불황이 닥쳤을 때 기혼, 미혼, 여성, 남성의 순서로 산업예비군화시킨다. 바로 자본가의 이해가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밀접히 결합되어 여성 모순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이 바로 여성해방의 정취를 가로막는 주요인이 되는 것이다.

3. 제 3 세계 한국사회 속에서의 여성모순

제 3 세계 여성운동은 여성의 문제가 단순히 남녀간의 성차별만이 아니라 생산관계의 문제, 제국주의 침탈과정 속에서의 제 3 세계 특수한 모순관계, 독점자본과 결탁한 독재정권의 반민족적 착취와 수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여성의 억압 등이 중첩되어 제 3 세계 여성모순은 성과 계급의 차별구조 위에 정치, 경제적 대외종속에 따르는 민족문제까지 결합되어 그 모순이 배가되어 나타난다.

특히 한국에서의 여성운동은 민족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는 제 3 세계 분단국으로서의 한국적 상황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민족운동의 과정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 한국의 여성운동은 그들이 놓여있는 구체적인 사회관계를 분석하고 그 사회관계를 개혁함을 선결과제로 삼았으며 일제하에 있어서는 독립의 문제가, 분단 이후에는 통일의 문제가 최대의 과제로 인식되어지고 있었다. 즉, 민족과제의 해결속에 여성운동의 기본방향을 위치 지우고 그와 동시에 여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한국 여성운동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 계급, 민족모순이 병렬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거나, 성의모순은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해결되면 그 이후에 자연히 해결되어지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현실은 이러한 세가지 범주의 문제가 중첩되어서 나타난다. 예를들면 매춘의 경우 '기생관망', '기지촌'의 문제가 그리하여 독일기업 '후레아손'의 근로 여성들이 독일인 기업가에 의한 성폭행을 당하고 이를 통해 노동운동을 탄압하거나 인신적 억압을 하는 경우 등에서 찾아질 수 있다.

현재 한국여성의 50%정도가 자본의 고용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저임금(남성의 42% 정도), 장시간 노동, 무권리 상태로 특징지워진다.

앞장에서 밝혔듯이 여성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여성의 진정한 해방을 위한 일차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사회적 노동에의 여성 참여는 여성들에게 무거운 부담이 된다. 그것은 자본에 의해 남녀노동이 노동의 영역, 임금, 고용기회 등에서 차별적으로 분할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노동을 하는 여성의 열등한 지위가 규정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역사이래로 존속되어진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최대한 이용하고 최대한 유지시킴으로써 여성을 남성에게 지불하는 절반의 임금으로 차별하며, 무상의 가사노동 담당자로 내몰아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산업예비군으로 전락시킨다.

이렇게 여성이 받고 있는 사회, 경제, 정치적 불평등은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차이를 이용하여 전통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특유

의 메카니즘이 모든 여성을 -노동, 농민, 빈민, 중산층 여성들에게 관철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철저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서만 여성해방의 전제조건인 '사회적 노동에의 참여'와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여성불평등의 철폐 즉, 민주주의의 철저한 달성이 현단계 여성해방운동의 당면과제가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성불평등의 철폐를 가장 절실히 염원하고 현단계 여성해방운동을 끝까지 수행하는 주체는 당연히 사회적 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의 억압을 받고 있는 피지배층 여성 즉, 기층 민중여성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는 사회적 노동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 경제, 정치적 불평등으로 인한 억압의 대상인 중산층의 여성들의 동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 또한 비사회화된 노동, 가사노동에 시달리며 가부장적 사회질서에 의해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부연해서 다시 이야기해보면, 여성모순 즉 여성억압, 착취의 본질은 여성이 노동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자신의 노동력의 댓가를 제대로 지불받고 있지 못하다는 여성노동력의 존재방식에 있다. 여성이 해방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순의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이 생산수단과 직접 결합하여 생산과정에 차별없이 참여하고 이에 의하여 분배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에게 강요되고 있는 자본주의 노동영역중의 비사회화된(가사노동) 노동영역이 사회화 되어야 하며 사회화된 노동영역도 여성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생산에 있어서의 완전한 사회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로써 여성이 해방되기 위한 궁극적 과제는 첫째 생산수단의 사회화 둘째 생산의 완전한 사회화 셋째는 차별적 분업과정의 철폐를 통한 동등한 노동영역에의 참여기회의 제공과 교육의 기회를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첫번째 과제인 생산수단이 사회화 된다고 해서 두번째 세번째 과제 즉 비사회화된 노동영역의 철폐가 필수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인 인간해방으로 나아가는 과정속에서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남, 여 모두의 해결과제라고 한다면 생산의 완전한 사회화와 차별적 분업과정의 철폐는 남성노동자의 당면과제는 아니며 상당히 그를 관심 영역 밖의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산의 완전한 사회화와 차별적 분업과정은 비사회화된 노동영역인 가사노동을 강요받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생산과 분배의 완전한 주체가 되지 못하는 여성에게 있어 억압과 착취의 근원이요 토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과제가 남성일반에게 있어서는 바로 가부장제의 철폐를 의미하며 남성우월의 생산관계 남성우월의 존재방식의 철폐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지만 결코 여성해방의 과정이 남성일반과의 적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것은 여성이 여성해방의 과제인 가사노동으로 부터의 해방과 가부장제의 철폐를 통해 생산과정에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생산의 발전을 의미하며 이는 남, 여 모두에게 혜택이 되기 때문이다. 남성은 결코 여성해방을 가로막기 위해 스스로 조직화

하여 투쟁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성의 완전한 해방, 여성이 생산과 분배의 주체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저지하려는 적극성을 가진자들은 여성억압, 착취를 통해 이익을 보는 세력이다.

따라서 여성해방의 과제는 대남성투쟁이 아니라 가부장제 가족구조속에서 자본에 의해 억압, 착취 당하는 계급관계를 철폐하고 새로이 창출되는 정치권력에 여성해방 사상을 어떻게 관철시켜 창조해 나갈 것인가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제를 끝까지 해결해 나갈 주체는 이러한 여성모순의 담지자인 근로 여성과 이러한 여성모순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여성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여성 현실과
우리

• 혼수문화속에 나타난 결혼상

◎ 매춘현장 르포르

• 우리시대의 뒷골목 막달레나의 집

혼수제도속에 나타난 결혼관

박신규 (월문과 84)

서론

“결혼은 현재의 법률이 공인하고 있는 유일하고 실질적인 노예제도다” 라는 글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흔히 20대 중반(특히 여성에게 있어서)에 접어들면 결혼 적령기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배우자 선정 및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기존에 있어서 고정된 사회의식 속에서 자라나온 우리들은 오도된 결혼관을 지니게 되었고 대학생이라는 진보적인 그룹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원칙적인 관점과 자신의 구체적 현실이 따로 분리되는 모순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녀야 할 올바른 결혼관은 어떠한가?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문제제가 속에서 현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혼수제도를 논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녀야 할 올바른 결혼관 및 남녀관계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론

원래 결혼이란 남녀 두 인간이 사랑에서 출발하여 자연이 그 속에 심어 놓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로 결합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남녀 사이의 애정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는 데에는 자식에 대한 기쁨, 그리고 의무 등과 같은 일들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리하여 결혼하고자 하는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성질을 이러한 결합 속에 적응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한 확고한 인식과 솔직한 답변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 일은 자연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욕구의 충족과 종족보존을 통한 자기 존재의 연장이라는 결합의 본래 목적과는 무관한 모든 이해들을 뿌리칠 수 있을 때, 그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 맹목적인 충동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식견도 아울러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의 본래적 의미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변천되어 왔다. 즉 결혼이 공적·집단적 차원에서의 의미보다 사적·개인적 차원에서의 문제로 간주되기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날 특히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는 앞에서 본 결혼의 진정한 의미와 순수한 동기가 실현되고 있는 경우를 보기는 참으로 힘들게 되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현대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것이 인간 대 인간의 관계보다 물질 대

물질로 모든 사물을 대상화 하게 되는, 경제적 요인이 생활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과정 속에서 경제적인 기반에서 소외된 여성들은 자신의 생활 수단으로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왜곡되게 자신의 억압된 삶의 도피처로, 남성을 통한 상승의 길로, 행복에로의 전기로 결혼을 간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현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파다한 혼수문제인 것이다. 즉 결혼에 대한 위와 같은 왜곡된 인식 속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장된 여성의 위치에서부터 출발하여 결혼의 근본적인 의미가 한 인간의 물질적(경제적) 사회적 신분(위치)을 중요시 하는 조건 대 조건의 결합이라는 결혼으로 치닫해 된 것이다. 그리하여 똑같은 교육과정과 비슷한 신분의 남녀들이라도 여성에게 부여되는 혼수 비용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다시 말하여 이것은 결혼 이후에 있어서 여성의 위치는 경제적인 권리가 미비하다는 것에 근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 자신도 이러한 경제적인 결핍을 혼수비용으로 무마하려는 심리적인 상태의 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결혼이라는 의미가 조건 대 조건의 결합으로 전락되어 사랑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아닌 물질 대 물질의 교환이라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식의 결혼이 자행되고 있으며, 혼수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실례 속에서 살펴보자.

【사례 1】

중학교 교사인 27살난 딸을 두었던 황 경란씨는 이미 노처녀가 돼버린 딸의 결혼을 놓고 고심하던 심경을 다음과 같이 신문에 투고한 적이 있다.

“.....외모가 훌륭하다는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 젊은이는 자신의 신부될 이는 뛰어난 미모의 여성이어야 하고 몇 천만원대의 혼수를 장만해 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세칭 일류대학을 나와 대학원 졸업반인 젊은이는 자신의 부에 못지않은 부유한 가정의 딸을 원하고 있었다. 그 이외에 몇 사람 다른 젊은이들도 우리집 같은 가난한 집은 곤란하다는 의견들이었다.

혹을 매려 갔다가 혹을 붙이고 온 격으로 나는 완전히 맥이 풀려 돌아오는 길에 꼼꼼히 생각에 잠겼다. 그래도 내 딸은 제법 영리하여 남부럽지 않은 대학도 나왔고, 환경탓인지 알뜰하고 여간 검약하지 않은가.....”

【사례 2】

구두쇠이기로 소문난 중년부인이 딸을 시집보낼 때 2천만원의 혼수비용을 썼다고 하는데 이 돈은 아버지가 30년동안 봉직한 직장에서 정년퇴직금 받은 것을 송덩 잘라 쓴 것이다. 그리고 시집보낸 딸은 인불도 반듯하고 대학원을 장학금으로 다니는, 그러면서도 조

신하게 처신을 잘하는 규수감이었다.

이 혼수비용은 시집에서 중매쟁이를 통해 조종하여 예단비용으로 수백만원을 쓰게 했다는 것이다.

【사례 3】

얼마전 의사인 김모씨(29세)는 부인과 결혼할 때 100만원의 혼수를 친정에서 가져오지 않는다고 이혼소송을 제기, 1인의 빈축을 사는 아픈답지 못한 광경을 연출해 내기도 했다.

【사례 4】

소위 마담뚜의 실태에 대하여.

주로 돈많은 집 딸과 장래성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신랑감을 중매해 주고 50만원 내외의 소개료와 성사될 경우 1천만원 정도의 사례비, 그리고 심지어 아파트와 승용차까지 선물로 받아내는 이들은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를 확장, 현재 서울에 만도 5백명이 훨씬 넘는 마담뚜들이 지하행동 대원들과 전국적인 정보자료를 가지고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결혼 세태가 그들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심지어 조장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혼수제도의 병폐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점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차이가 사회제도적으로 성의 차별화로 되어 여성을 경제적으로 열등한 자로 만들게 됨과 함께 혼수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그물은 소위 사회의 부유계층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실례와 같은 혼수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몇 %가 되겠는가? 우리가 항상 신문지상이나 학교의 대자보 속에서 볼 수 있는 소외된 계층, 특히 한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그들들 속에서 이러한 결혼이 가능하겠는가? 10만원 미만의 저임금 속에서 생활하는 그들에게는 결혼식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치로 밖에 생각할 수 없어 사랑하는 남녀 관계도 동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대다수라는 것을.....

결 론

그러면 혼수제도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사회적으로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위치의 강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또한 남녀 관계의 올바른 정립을 전제로 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에 있

어서 가장 진보적인 사상과 실천을 담보하고 있는 대학생 그들 속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문제제기 하면서 남녀 대학생들의 열린 마음과 공간을 창출하여 실천적으로 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올바른 남녀관계는 남녀 공히 여성의 불평등 상황과 그 근원에 대한 과학적 인식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즉 여성의 열등한 상황이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특히 경제제 모순 구조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여성 스스로도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체로 서기위한 노력과경제적인 자립은 일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모순을 담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단합된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녀 관계는 사회를 향하여 열린 관계로 존재해야 하며 성 자체가 인격화 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서 상품도구로 전락되어 버린 성을 성의식에 대한 발전을 감행하여 인격을 갖추게 한다.

위의 글을 요약하면 올바른 남녀 관계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 올바른 사회는 올바른 남녀 관계를 형성시킬 것이다.

이러한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때에 인간의 역사는 발전하고 결혼의 본래적 의미를 다시 찾게 될 것 이라 생각한다.

우리시대의 뒷골목
막달레나의 집

취재부



* 上海, 400, 16 × 22cm, 2004年4月。

우리가 막달레나의 집에서 나왔을 때에는 8시경,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도시의 골목속에 “여인숙” “여관”이라는 알록달록한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였다. 현여를 더위에 한산하게 느껴졌던 오후의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길가에 늘어선 포장마차 속에서 분주한 움직임들이 보였고 골목에도 서성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막달레나 집을 운영하는 수녀님과 정아언니와 함께 용산역 광장앞에서부터 XX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유흥가를 돌아보았다. 나에게겐 왠지 썩한 발걸음이었지만 두분은 익숙한 몸짓과 표정으로 사람들을 만나갔다. 용산이라고 하면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지워진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곳에서 서울로부터 동떨어진 또 하나의 고립된 섬에 와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인숙 앞 마루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포주아줌마들과 다른 한구석에 서너명의 남자들(기동서방이나 펌프)을 보았을 때 분주한 문명사회와는 먼 시골의 줄리 저녁시간이 머리속에 떠올랐다.

그렇지만 시골의 평화로운 풍경과 다르게 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생계수단으로 살아가는 아가씨들의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가치있는 존재로 보이기 위하여 짙은 화장을 한 얼굴들이었다. 아가씨들 뿐만아니라 포주 아주머니들도 수녀님과 정아언니를 스스럼 없이 대하였다. “2달전에 수술을 했는데 아직도 뎀스가 나오지 않아요. 임신을 했으면 몸이 변하기 때문에 즉시 알 수 있는데….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애가 쉽게 붙지. 지난번에도 피임약을 꼭꼭 먹다가 하혈을 하길래 생리인줄 알고 하루 약을 안먹었더니 재수없이 걸렸지 뭐예요.” 나와 엇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던 그아가씨는 얼굴표정하나 변하지 않고 말을 하였다. 그아가씨와 나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내가 만약 아가씨가 자라온 환경속에서 태어났더라면 지금쯤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것은 나의 또다른 얼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매춘여성을 나의 글의 소재로 대상화시킨 내자신이 부끄러웠다. 한시대를 살고있는 사회의 일원으로써 같은 여성으로 그녀들의 모습은 우리 내부에 숨겨둔 또하나의 얼굴인 것이다.

내가 찾아갔던 막달레나의 집은 용산지역의 매춘여성을 위한 봉사의 집이다. 그곳은 난폭한 기동서방으로 부터 피신할 수 있는 곳이며 생활속의 아픔을 상담하는 곳이자 새로운 삶의 형태를 찾아보고자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이다. 한달에 한번있는 양의사의 진료와 일주일에 두번꼴로 오시는 한의사의 침놓는 시간외에는 규정된 프로그램은 없으나 문은 항상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우리사회의 매춘여성문제에 대하여 실천적 고민을 하시던 문수녀님은 2년전에 정아언니와 함께 조그마한 방을 얻어 성의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그녀들의 삶속에 뛰어 들었다.

정아언니는 40대에 들어선 젊은 피부와 건강한 몸을 지닌 분이었는데 그녀의 표정속에는 남다른 힘들게 살아온 과거와 그 어려움을 창조적인 힘으로 변형시킨 새로운 의지가 열보였다.

정아언니는 이 지역에서 사신지 이제 20년이 넘어간다. 젊었을 때에는 용산지역에서 벗어나면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막연한 이 있었으나 이제는 정이들었기 때문에 떠나지를 못하고 계신다. 그러나 문수녀님을 만나기 전에는 한동안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었으나 항상 용산 아가씨들을 위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고민을 하며 심지어는 그지역에서 옷보따리를 들고 다니며 장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아가씨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구상도 하셨다고 한다. 아가씨들에 대한 가슴깊은 곳에서 우리나오는 사랑과 끝없는 헌신은 그녀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속에서 나왔고 이러한 이해는 정아언니 스스로 이러한 삶을 살아보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가 그녀에게 준 멸시, 학대, 외면을 그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사랑으로 되돌려 주는 속에서 그 상처는 치유되는 것이다.

아가씨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로 남아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관이다. 남성관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계층속에 속해있는 여성들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남성관을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속에서 전통가족의 해체와 물질 숭배적인 사회풍토 속의 개개인의 고립화는 우리시대의 외로움을 가져다 주었다. 부의 획득을 목표로 만들어지는 영화나 매스컴은 현대 사회의 인간소외를 건강한 공동체 문화의 형성을 통한 극복을 모색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은 눈을 돌리는 곳마다 남·녀가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섹스문화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을 때 남녀관계에 대한 동경은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촌사회의 이농현상과 함께 시골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취직하거나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 어린 아가씨들에게 미치는 매스컴의 역할은 더욱 크다. 기동서방들은 아가씨들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면서 빌붙어사는 사람들이다. 아가씨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동서방에게 빼앗겨 가면서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애인이 있다는 만족감으로 수탈을 감수한다. 기동서방은 서울의 각 지역에 애인을 두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그녀들위에 왕처럼 군림한다. 아가씨들은 애인들로 부터의 일시적인 사랑(많은 경우 폭력을 동반한다)이후 버림을 받고 나서는 후회를 한다. 그러나 또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불쌍한 남자를 위하여 어머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순진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말라비틀어진 생활속에서 조금이라도 친절을 베풀어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사랑에 빠져 자기 자신의 순결과 희생을 바치는 우리의 젊은 여성노동자들과 유사한 점이다. 아가씨들이 처음 매춘에 홀려들어오게된 과정도 여성노동자들과 비슷하다. 대부분 시골출신으로서 돈을 벌 생각으로 서울에 올라왔다가 남치를 당하여 영등포나 청량리로 가게되는 신세는 50~60년대의 전형적인 이야기이다. 어떤 아가씨들은 공장에서의 저임금으로는 시골의 부모와 동생들을 돌보아 줄 수 없어 좀더 많은 돈을 벌기위하여 시작하였고 또 어떤 아가씨들은 식모생활이나 공장생활속에서 주인 남자에게 농락을 당하고는 자기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자포자기하여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직장에서 보다는 많은 월급과 사치적인 생활이 있지만 사회속에서 천대받는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얻는 정신적인 고통은 곧 육체적인 고통으로 전환되어질 수 밖에 없다. 많은 월급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댓가를 받지도 못한다. 앓은병이라고 불리우는 아가씨들은 집안에 앉아 있고 포주가 길거리에서 손님을 데리고 오게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경우 아가씨는 손님이 내는 돈(팁도 포함)중 1/3만을 차지하게 된다. 거기에다가 방세, 전기세, 수도세를 계산하면 별로 남는 것이 없다. 하룻밤에 고작 700~800원 정도, 성격이 좀더 강한 아가씨들은 직접 역앞에서 손님을 모셔 오는데 그경우 아가씨들은 1/2을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아무리 성격이 걸걸하다고 하더라도 쉬운일이 아닐것임을 쉽게 상상할 수 있

다. 술대신에 아가씨들은 흔히 옴다리돈(뽕아이약)이라고 불리우는 환각제를 복용 몽롱한 상태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행하게 된다. 열심히 벌면 한달에 30만원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옷, 화장품, 전자제품등을 구입하다가 보면 저축하는 돈은 거의 없다. 그 여성들은 유달리 사치스러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절약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정아언니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가씨들은 용산에서 시청까지를 가더라도 지하철이나 버스는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탄다. 그런데 그택시를 타는 이유는 게으르거나 돈을 절약하고 싶지 않아서는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타게 되면 웬지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 같고 혹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서 견딜수가 없다는 것이다.

자연히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그지역외의 다른 사회에 대해서 큰 두려움과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들의 삶은 점점더 폐쇄되어 간다. 그리고 이러한 삶외에 다른 삶을 살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점점 잃어간다.

이렇게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아가씨들은 미래에 대한 개념을 가지지 못한다. 오늘의 모든 행동은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고 전제했을 때 만 건강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데 아가씨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아언니는 이러한 삶을 함께 나누었기에 아가씨들로부터 큰언니와 같은 존재이다. 그녀는 생일잔치나 결혼에는 별로가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나는 오히려 아무도 와주지 않는 환자의 집이나 초상집에 가서 밤새 찌계를 끓여주겠다. 이곳에서의 초상집은 정말로 쓸쓸하다. 아무리 가까이 지내던 사람도 부정을 탄다는 미신때문에 봉투만을 보내온다는 것이다."

정아언니는 80년도에 매춘여성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개나리회'의 첫회장으로 선출된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외부로 부터의 도움이나 정부로 부터의 지원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아가씨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서 뚫는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것 같다. 사소한 운동 예를들어 고운말쓰기, 매니큐어 안바르기 운동을 비롯하여 1인1봉장 운동, 환각제 안먹기운동등, 자기자신에 대한 자존심과 믿음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에서 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번돈을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빼앗기는 사연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해를 위하여 일어설 수 있게 단련시키려 함이 목적이다. 또다른 한가지 사업은 용산역 앞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보리차 나눠주는 운동, 고아원 방문등을 통하여 그들보다도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새로운 긍지를 배우게끔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포주아주머니들과 기동서방들에게서 욕도 많이 먹고 아가씨들에게서 불평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가끔씩 찾아 올때가 있는 것을 보니 내가 헛일을 한것은 아니구나

라고 정아언니는 생각하신다. 개나리회는 을가을중 다시모여 총회를 열고 임원을 뽑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 뽑힐 임원들은 경찰로부터 절대신분보장이라는 약속을 철저하게 받아두었다.

용산지역은 서울의 타지역에 비하여 온순하고 깨끗하다고 한다. 그 규모도 작은 편인데 전부 합해 250명 정도의 아가씨들이 있다.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여인숙이나 여관에 show window 쇼우 윈도우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백화점의 진열장처럼 지나가는 사람의 눈길을 끌어서 그물건이 맘에 들면 돈을 주고 내것으로 만들수 있다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심리를 이용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붉은 조명에 핑크빛 커튼이 드리워져 있는 복도를 전에도 못본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것은 말 그대로 백화점 진열장이었다. 그 진열장속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아가씨가 의자에 앉아 있다. 아무런 표정도 없는 그얼굴은 뒤에 붙어있는 여인의 사진(화장품 선전이나 맥주집에서 흔히보는 수영복 입은 여자)속에 보이는 밝은 미소와는 대조적이었다. 하나는 단지 사진에 불과했지만 내앞에 있는 사람은 나와같은 사람이었다. 성의 상품화라는 것을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본적은 처음이었다. 유리전시장 안에 부드러운 실크속치마를 입고 있는 아가씨의 뒤에는 고동있는 자계가 있어 그녀의 상품 가치를 한껏 높여주고 있었다.

우리들은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이러한 풍경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이 좀더 쉽게 이러한 것들을 접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더러운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가 새삼스럽게 그물이 더러움을 못느끼듯이 우리들은 이러한 주위의 환경들에 대해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남학생들은 농담을 주고 받으며 '총각 딱지 댄다'라는식의 이야기를 던지며 왜가냐고 물어보면 호기심 내지는 슬쉬한 김에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기분풀이 하었다라고 쉽게 대꾸한다.

여성의 매춘은 모든시대, 모든 민족을 막론하고 이 지구상에 존속하여 왔다. 이는 아마도 조절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성생활에 기여할 뿐아니라 '인간의 본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며 매춘을 하게되는 동기는 대부분 많은 여성들의 타고난 결핍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천재와 백치, 거인과 난장자들이 있고, 정상적인자들이 변형되어 나타난 사람들이 있듯이 출생시의 잘못으로 매춘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는 변태자들 또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주위의 친구들도 매춘여성에 대한 많은 편견과 더불어 매춘제도에 대한 정확하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남성에게는 여성보다 더 참을 수 없는 성적 욕구가 있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매춘제도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고방식은 남녀모두가 느낄 수 있는 성적 욕망에 대해 여자에게는 결혼과 정조를 강요하면서 그것을 위반할 경우 사회적 질서와 폭력등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남성에게는 참을 수 없는 욕망의 해소를 국가적 차원에게 묵인, 장려하는 매춘제도를 정당화 시키는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우리가 매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진솔한 태도를 가지게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매춘에 대하여 접하는 것은 여성지나 주간지를 통해서이다. 이러한 기사들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제목과 사진을 빼면 별로 내용성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사들속에서 매춘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는 진지한 고민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 즉 이러한 기사속에서는 우리에게 잘못된 이데올로기의 주입과 더불어 무관심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81년에 출판된 「하이트 리포트 남성편」에 의하면, 결혼한지 2년 이상된 남성들의 72%가 적어도 한번쯤 바람을 피운일이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장래적 불륜남성임을 그 수자로도 알 수 있으나, 수자만으로는 불륜 남성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불륜에 이르는 동기나 유형은 백연 백태이기 때문이다.

남성으로서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며, 그것은 근대에 이르러 인위적으로 강요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의외로 남성의 백슈얼리티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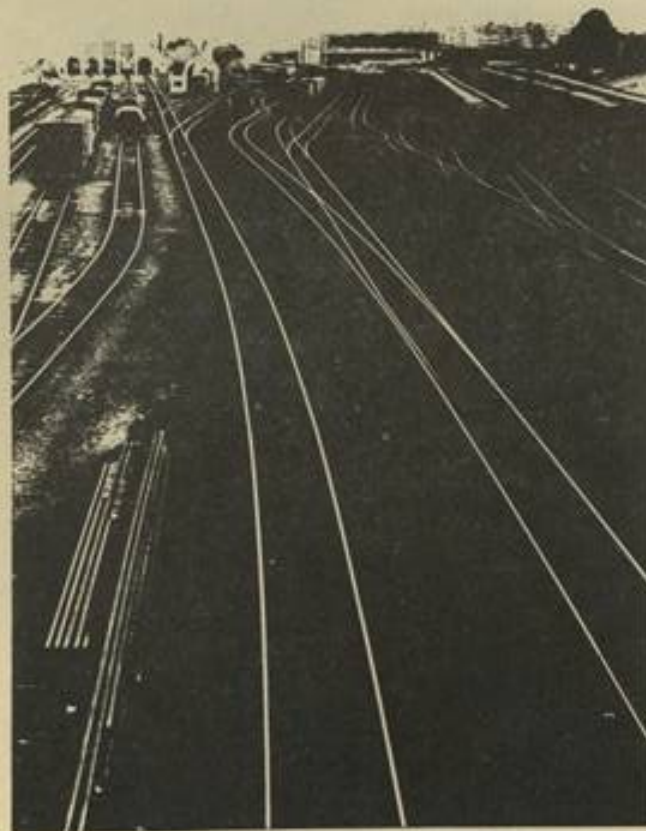
그 이는 지금 어떤 기분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일까, 아내와 애인 중 어느 쪽을 더 중요시하는 것일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일까……등등, 불륜을 저지르는 남성들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자. 당신 남편은 어떤 타입에 속할까?
(여원)

이렇듯 지극히 현상적이거나 흥미위주로 쓰여져 있고 가부장제에 일부일처제인 사회속에서 남성의 외도를 당연히 함으로써 매춘을 정당화시키고 매춘문제의 본질을 흐려놓는 기사들을 접하게 되면서 사회의 소외된 민중을 고민하는 우리들마저도 매춘여성 문제에는 패배주의적 시고와 함께 무관심하고 있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매춘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해결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나는 다시 한번 아가씨들이 어떻게 하여 매춘에 홀려들어오게 되었던가를 지적하고 싶다. 용산 막달레나의 집을 방문하면서 나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 절대적 빈곤과 저임금에 의하여 매춘에 발디디게 된 여성들에게 지금의 되풀이되는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뚜렷한 일자리와 가정이 있다고만 한다면 그녀들은 오늘 당장이라도 떠날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이 여성들은 그 삶에 이미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못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여성의 신체와 정신을 돈으로 사고 파는 매춘행위에 대하여 사회적인 필요성과 역사적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묵인하고 권장하는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생산적이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 역시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녀들도 '개나리회'와 같은 모임을 통하여 주체적이고자 스스로 노력할 때 억압의 역사는 깨뜨려 질것이며 "인간의 몸이 돈과 바꾸어질 수 있다"라는 지배적인 사고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표2) 원두시

사랑

박 노 해

사랑은 잔인한 것, 냉혹한 결단
사랑은 투쟁, 무자비한 투쟁
사랑은 회오리,
온 바다와 산과 들과 하늘이 들고 일어서
폭풍치고 번개치며 포효하는 피빛으로
새로이 나는 것
그리하여 마침내 사랑은
고요의 빛나는 바다
햇빛 쏟아지는 파아란 하늘
이슬 머금은 푸른 대지위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 하나가 되어
춤추며 노래하는 눈부신 새날의
위대한 잉태

사랑은 자기를 해체하는 것,
우리가 되어 역사속에 녹아들어 소생하는 것
사랑은
슬픔, 가슴 미어지는 비애
사랑은 분노, 철저한 증오
사랑은 통곡, 피투성이의 몸부림
사랑은 갈라섬,
일치를 향한 확연한 갈라섬
사랑은 고통, 참혹한 고통
사랑은 실천, 구체적인 실천
사랑은 노동, 지루하고 피로운 노동자의 길

여 성
공동체
문 화

시 흠어지는 노래

여성 미술 운동에 대하여
「꽃을 통하여를 읽고」

노래에 나타난 여성상

- 대중가요와 대학가 노래 중심으로 -
- 함께 부르기 노래 - 곡

흘어지는 노래

박 성 제

상흔 곳곳에 박힌
아무 것도 될 수 없던 손을 내려다보면
갑자기
천갈래 만갈래로 금이 간다
곳곳에 덧을 숨긴 미로에 어지러워 주먹을 쥐면
덜컹하는 손톱

먼데로부터 내려 덮인 하늘이
웬일인지 시린 어깨 감싸주지 않음을
넋나간 웅시로 채우쳐 물다가
게 깃들여 사는 것들의 끊임없는 욕망에
그만 하늘을 용서

윙윙 울리는 가슴은 악보가 필요없는 노래
목으로 부르는 게 아니야
상처난 손가락, 그슬린 어깨, 비맞은 머리칼로
그저 풀어 나가는 노래
내버려진 돌부리를 스치고
나뭇잎 사이를 가르고
누군가의 이마를 짚었다가
천만갈래의 금으로 찾아드는
노래

여성 미술 운동에 대하여

— Judy Chicago의
꽃을 통해서를 읽고 —

문영미(사학과3)

우지숙(신방과3)



들어가는 말

꽃을 통해서 (Through the flower)는 미국의 여성화가 주디시카고가 해방된 인간으로 그리고 화실속의 고립된 화가가 아닌 실천하는 화가로 변화되는 과정을 그린 책이다.

물론 한국사회와는 역사적·사회적으로 다른 미국사회 내에서의 여성해방운동을 다루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여성 모순의 보편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향한 끊임 없는 몸부림과 미술을 매개로 한 평등사회로의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에게 개인적인 감동과 격려 뿐 아니라 여성해방운동의 창조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현실속에서는 여성문화운동의 그 실체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저조한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여성문화에 대한 우리의 뚜렷한 이론이 부재한 상태속에서 우리의 여성문화운동과의 비교 역시 깊이있게 진행되지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다고 본다. 그것은 보편적 여성해방문화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인간해방의 문화이요, 진정한 민중문화인 것이다. 이 글을 통하여 여성해방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시카고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을 비판하면서 여성문화운동 이론의 정립을 향한 많은 논의들이 시작되기를 바란다.

시카고의 한계점들을 지적하기 보다는 그녀의 창조적이며 전위적인 예술혁명가로서의 활동에 이 글의 촛점을 두고자 한다. 그것은 그녀의 사상이 도전과 좌절의 반복을 통하여 변화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 더욱 많은 남·여학생들이 가부장제 문화속에서의 독자적 여성문화의 필요성들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첫부분에서는 시카고가 자라는 가정환경을 살펴보고 그녀가 성장하는 과정속에서 어떠한 동기 때문에 여성공동체의 필요성들을 느꼈으며 그 공동체 속에서 잉태된 새로운 문화의 가능성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겠다.

두번째 부분에서는 여성문화운동의 공동체적, 민중적인 성격들을 고찰함으로써 여성문화운동이 전체 인간해방운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I

주디 시카고는 미국의 대불황이 끝나가는 무렵, 1939년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그 당시 미국에는 노동운동이 줄기차게 전개되었고, 그녀의 아버지도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그녀의 어머니 역시 시카고가 어렸을 때부터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은 어린 시카고에게 여성도 인간의 역사와 사회생활 속에 일문을 담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켜 주었다. 그들의 집에는 흑인, 백인과 미국의 소수인종들이 자주 모여서 정치를 토론하곤 하였다. 결코 그 시대의 평범한 가정은 아니었다. 이러한 성장배경은 시카고로 하여금 사회에서 규정지어 놓은 여성으로 급게 크는 것이 아니라 사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으로 성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 모태였다. 자주적인 사고를 가진 시카고는 가정의 굴레를 벗어나 대학에 진학하고 또다시 사회로 뛰어들면서 자신의 사고가 사회의 고정관념과는 적대적이라는 것을 남보다 많이 겪게 된다. 실망이 크면 클수록 좌절하는 것이 아닌 끈질긴 도전으로 시카고는 개인의 한계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간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계속에서 풀어보려고 한다. 가까이서 남자친구나 남편과의 관계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사회속에 평배해 있는 가부장제에 대한 싸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시카고가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깨닫게 된 시기는 대학교 때이다. 그 이전에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불평등들이 구체화된 것이다. 봉건사회의 신분적 예속의 철폐와 함께 사라진 여성의 법적 불평등은 미국사회에서는 이미 해결되었으나 아직도 가부장제속에서 가사노동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부여받은 여성들은 생산노동에서 소외된다. 여성들이 생산노동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사노동의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임시직이나 단순노동으로 고용되며 저임금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가사노동은 여성들에게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세상과는 인연을 끊은 채 매일매일 반복된 일에 매몰되게끔 하는 것이다. 시카고는 젊은 예술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세워나가고자 했으나 가부장제의 질서는 그녀의 노력들을 꺾어 버렸다. 대학생활 속에서 시카고는 사회가 자신을 평가하는 눈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이미지를 발견하고는 그 괴리감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고 고민하게 된다. 즉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한동안 그녀는 여성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남성화 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그녀는 한동안 낡은 부츠와 잠바를 입고 남성동료들 하고만 어울렸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 평범한 여자들의 대화속에는 옷, 음식, 남자친구의 이야기밖에 찾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 시카고는 정치, 예술, 인간의 억압적 역사에 대하여서도 논의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성화를 통한 여성화는 올바르지 못하며 여성들 스스로 일어서서 평등을 쟁취해야 함을 올바로 인식하게 된 것은 남자동료와 교수 속에서 발견한 한계 때문이었다. 형식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1950년대에 시카고는 졸업준비에 전념하였다. 추상형식주의(Abstract formalism)란 작품의 내용에서 분리되어진 순수한 형식만을 통한 감정의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시카고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들을 그림을 통하여 표출하려고 하였고 그녀의 여성적인 감수성들이 캔버스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표출되었다. 남성적 감수성에 젖어있던 교수들은 그녀의 작품에 대한 거부감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비과학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그러한 그림들을 계속 그리면 앞으로 졸업하기가 힘들 것이라면서 반 힘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 이전에는 예술과 사회에 대하여 공부를 하였던 남자동료들도 시카고의 여성적인 감수성에 대하여서는 냉정하였다. 그녀의 여성미술에의 첫 시도는 여기에서 좌절된다. 그러나 시카고는 이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미술을 남성문화에 매몰된 남성평가론들을 위하여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자신의 미술은 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결심한다.

시카고는 졸업 이후의 작가생활속에서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가 빚어낸 질곡속에서 방황한다. 여성으로서 느끼는 것들을 그림속에 표현하기에는 기존 미술형식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대학시절에는 개인적이고 잠재적이었던 문제제기를, 모순을 안고있는 다른 여성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 미술의 중심지인 L.A에서 벗어난 조그만 대학교에서 시카고는 2년동안 강사생활을 한다. 여학생 화가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주관하였는데, 그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 시카고 스스로 화가로서 자리잡게 되는 과정을 나눔으로써 여학생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었고, 둘째, 시카고는 여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여성미술 공동체를 형성하고 여성미술 형식에 있어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

1년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에 관하여 설명을 해보겠다. 시카고는 우선 남성문화에 젖어들어 있는 여성들의 수동적인 모습을 극복하고 미술인으로서의 직업의식이 뚜렷한 인간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환경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녀들은 일정한 시간을 학교와는 동떨어진 작업장에서(남성문화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남을 의미함) 일차적으로는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토향을 만든다. 함께 부딪혀 가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고립 분산적인 삶 속에서 잃었던 자신감과 협동심을 키워낼

수 있었고 그런것들은 20여년간 받아온 교육과 사회적 경험속에서 만들어졌던 인생관, 남성관들을 진솔하게 나누며 또한 재평가하면서 그들 사이에 생산적이며 적극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에는 토론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들을 시각매체를 통하여 재해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시카고를 비롯하여 많은 여학생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고 여기서 자신감을 얻은 시카고는 고립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여성 화가들을 끌어모아 토론을 하고 전시회를 열었다. 여성의 잊혀진 역사의 맥을 찾기 위하여 여성작가와 화가들을 발굴해 내고 책이나 슬라이드쇼로 묶어냈다. 또한 「여성의 집」을 구성하여 생활공간을 통한 여성문제에의 접근을 시도하였고, 짧은 공연 등을 통하여 가사노동의 지루함과 고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시카고와 몇몇 여성들은 여성의 문화를 위한 건물을 만들어 사회여성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여성문화의 장을 창출하였다.

II

시카고가 말하는 가부장적 문화란 무엇이며, 그에 대응하는 여성문화란 무엇인가? 과연 여자가 만들어내는 것은 여성문화이고 남자가 만들어내는 것은 남성문화인가?

남·녀 문화의 성격이나 주제를 살펴보기 이전에 남·녀 문화가 분리되어진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그 차이의 물적 토대를 알아보고자 한다.

자본주의 문화가 성립되기 훨씬 오래 전부터 남·녀간의 성별분업은 존재하였다. 원시공동체 사회속의 분업이란 차별이 아닌 차이로 존재하여 왔지만,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생활용품이 남아들기 시작하였고 그 부를 독차지하게 되는 것은 소수 남성들이다. 그 때부터는 다수의 남성들과 모든 여성들은 지배층 남성에게 예속되었던 것이다. 가부장제는 일종의 분할통치로써 소수에 의한 다수의 억압적 구조를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 존재하였던 성별분업이 계급으로 갈라섬과 함께 차별로써 뚜렷하게 대두하게 되는 것이다.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오는 과정속에서 여성들은 많은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성적 분업이 더욱 뚜렷하게 자리잡는다. 봉건사회에서는 대가족 제도에 여성의 가사노동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자본주의 사회속에서는 생산노동에서 여성들이 제외됨으로써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예속의 정도는 심화된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이렇듯 여성에게 있어서 가사노동을 일차적인 것으로 규정지으며 여성들에게는 현모양처로서의 사회적 의미만을 강요한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은 여기서 잘 드러난다. 즉, 여성에게 가정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여

성을 생산노동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미 이차적인 노동으로 된 생산노동분야에서 여성들은 일시적, 미숙련직으로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문화란 하나의 일관되고 통일적이며 민족에게 널리 퍼진 삶과 인간에 대한 생각이며 동시에 하나의 일상 종교이다. 즉 그것은 윤리적인 삶의 방식, 그리고 인간의 사적 행위를 이루어 낸다. (그람시)”

문화적 입체감은 비슷한 생활환경, 노동속에서 가능하다. 여성과 남성의 문화적 이질감은 사회적 노동이 남성에게 분담되어지고, 사적 노동은 여성에게 분담되어지면서 생겨난다. (사회적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도 직업의식이 뚜렷하지 못하며 자신의 위치는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남성들은 서로를 짓밟으며 성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문화를 만든다. 그들의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호전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드러우면 안되며 울어서도 안된다고 교육을 받는다. 적어도 남자라면 용맹스럽고 씩씩하며, 남을 이길 줄 알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가부장적 문화는 폭력·억압·차별·고문의 문화이며, 남성들은 지극히 이기적이며 경쟁하기를 좋아한다.

그 반면 여성들은 어떠한가? 사회적인 움직임에는 비록 문외한이지만 가정내에서 그녀들은 자신을 헌신하며 남편과 자식을 위해 뒷바라지 한다. 지금은 모성이 사회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학위의 역사를 살아온 여성들에게서 우리는 배울 점이 많다.

“이들(여성)은 소위 남성적 특징, 즉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성취해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허망한 꿈을 버리지 못하는 남성들의 경향에 주목하면서, 이에 반해 여성특유의 역사적 경험에서 유래된 특징, 즉 억압받는 자로서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 자녀양육능력, 타인과의 제휴능력 및 사려 깊음 등은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 조혜정 수교 —

우리의 사회를 평화, 대동, 통일, 자위, 평등, 사랑, 자비, 해방의 사회로 만들어 예 있어서 여성으로 억눌려왔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여성적인 부드러움, 너그러움등 <수동적이면서 적극적인> 여성의 문화는 더욱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문화적 가능성들을 하나의 힘으로 집약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하였듯이 여성들은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강한 하나됨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녀들의 삶 전반에 농후한 소극성, 폐쇄성, 소외는 그들이 하나로 모일 때만이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공동체 속에서는 유능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무능한 사

함을 지배하려 들지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전환할 수 있다. 여성의 소외를 극복해 나가는 문화는 공동체 문화이다.

여성문화가 아닌 또 하나의 성격은 리얼리즘이다 (물론 여성으로서의 자각을 전제로 한다).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부자유와 억압의 무리들 속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깔린 존재로서 생활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에게 있어서는 예술의 형식, 형이상학적인 유희는 별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억압의 현실, 고통, 그리고 해방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고자 한다. 주디 시카고 역시 이러한 갈등들을 느낀다. 그녀는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의미를 흐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용의 직접적이고 솔직한 표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예술성에 있어서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가슴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카고와 그의 동료들은 여성의 억압적 현실을 종자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공연예술을 하는데 한 여성은 관객들 앞에서 몇시간 동안 계속 다리미질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한다. 여성의 예술의 역사를 극복할 수 있는 미술은 바로 리얼리즘인 것이다.

공동적인 요소와 리얼리즘적인 요소는 시카고의 미술속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술운동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요소다. 그렇다면 이제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다.

이제까지는 내용을 이야기 하였다. 여성해방 미술의 형식은 어떠한 것일까? 형식과 내용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존하고 있는데 형식은 내용의 올바른 전달을 위하여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내용을 기존의 형식이 담보해주지 못한다면 그 형식의 틀은 깨지고 만다. 여성들은 가부장제 문화속에서는 답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는데 그 형식은 남성을 위한 형식이었지 여성을 위한 형식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그녀들은 캔버스의 딱딱한 틀과 추상형식주의에서 과감히 탈피를 하고 그녀들의 일상적인 삶속에서의 형식을 모색한다.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집안 대대로 만들어진 조각이불, 돗자리, 뜨개질, 심지어는 빵을 구워서 그들의 삶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재료 사용에 있어서의 변화 뿐만 아니라 그녀들은 몇달 동안의 공동창작을 통하여 집을 새로 뜯어고치고는 '여성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다. 그녀들의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의 여성해방미술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고무적인 점이다.

그녀의 소재 선택에 있어 독특한 것은 이 시대의 억압받는 여성의 상징인 음부를 꽃으로 그리는 것이다. 꽃은 여성다움의 상징인 동시에 연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여성의 현재 위치 (여성다움으로 상징될 수 있는)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여성다움을 진정한 인간다움으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가부장적 사고를 깨뜨리고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다는 데에는 의미가 있으나 여성모순의 본질을 생물학적 차이에 두고 있을 때에는 진정한 해방을 쟁취하는 방법이 없다. 그녀는 여성모순의 기원을 계급의

형성과 연결시키지 못함으로써 생물학적인 차이에만 매몰시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마치는 말

여성미술이란 여성이 주체가 되어 여성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칠 때 여성은 해방되지 못한다.

여성해방미술은 여성의 용어리진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신명의 미술이어야 하며 그 속에서 양성적인 인간상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시카고의 오류, 즉 생물학적 차이에 매달려 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모순과 계급모순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필요로 한다. 그 인식을 토

대로 하였을 때에만 여성운동의 투쟁대상이 명확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여성해방미술의 소극적인 모습을 시카고와 비교해 볼 때 이러한 결론으로 모아진다. 즉, 여성 또한 남성의 감수성 속에서 교육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접할 수 있는 형식 또한 남성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한 것이었다. 여성해방미술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좀 더 공동체적, 민중적이며, 여성적인 형식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한 형식을 위해서는 화실속에 고립된 여성 화가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뛰어나와 여성의 모순을 극복해나가는 삶속에서 구현해내는 창조성과 가능성들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 노래속에 나타난 여성상

서론

안 석 회 (사회사업학과 85)

노래라는 문화매체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일상성이다. 노래를 부르는데는 기악이나, 영화의 경우처럼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꼭 일정한 시간적인 제약이나 특별히 장소를 필요로 한다는가 하는 제약은 거의 받지 않는다.

수많은 대중매체들을 통해 끊임없이 접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여럿이 모이건 혼자 이견 그저 흥얼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노래가 가지는 이러한 일상성 때문에 노래는 가장 대중적인 문화매체가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누구나가 아무런 제약없이 부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래이기 때문이다.

노래가 가지는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선율에 가사가 얹혀 나온다는 점,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두 장르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래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노래는 가사라는 문학적 요소와 선율이라는 음악적 요소가 상호 연관성들을 가지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추상적인) 음울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라는 내용도 일정하게 그 음울에 실려 수용되며 그 가사는 알게 모르게 수용자의 의식에 침투하여 그 의식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노래는 가장 대중적인 매체이면서 또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문화매체이다 라고 말해도 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노래문화는 거의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있다. 한 쪽은 자본주의의 상품 생산 관계에 묶여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지배자의 이데올로기적 통제기구로 민중을 허구적인 환상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대중가요, 그리고 현재 사멸되어 가는 예술가곡과 다른 한 쪽은 그 대항문화로서의 대학가요, 혹은 저항가요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가요의 수준이 얼마나 저열한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대학생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한다. 우선 가사에서 보면 그 주제는 유일하게 노래부르도록 허용된 단 하나의 주제 - 사랑과 이별 -에 국한되어 우리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전혀

답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 음악적 내용으로 볼 때 민족적인 리듬과 가락, 음계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일제 문화통치의 산물인 트롯트(뽕작)와 미국의 남한 점령과 더불어 건너 온 록, 고고, 디스코 등의 서구적 리듬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등 전통적인 민족 가락이 단절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를 삶의 총체적인 표현양식이라 간단히 소개했을 때 노래 또한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삶과 민족적 전통에 구체적으로 접목되어야 하는 것은 일종의 당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당위는 현실에 무척대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현실은 소망스러운 바램이나 정당한 논리와는 반대로 전개되는 수도 있으므로.

나는 짧은 이 글에서 현재 대중가요의 가사에서 나타나는 여성상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대항문화인 저항가요 속에서 여성문제를 다룬 노래를 찾아 어떻게 여성을 바라보며, 여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현상적인 면만을 바라본다면 여성은 이전 봉건시대보다 훨씬 많은 자유를 획득하여 남녀간의 불평등은 그렇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여성을 직접적으로 억압하던 가사노동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어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아직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남녀간의 임금격차,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라"라는 이데올로기적 억압과 여가시간을 늘리는데 필요한 또다른 수입의 문제 등 산적한 문제점이 은폐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 체제는 이러한 문제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도는 곧잘 문화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문화는 그 사회의 반영물이며, 특히 대중문화는 흔히 이데올로기 통제기구로 사용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문화매체, 특히 노래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소박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구체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대규모 문화매체의 하나인 대중가요가 어떻게 여성문제를 은폐하며 그 당사자인 여성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항문화로 자리 잡은 저항가요에서는 어떤 시각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폭로하고 있는가에 대해 서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주* 여기서 문화라고 했을 때 언론과 출판물 제외한 협의의 문화, 혹은 예술이라고 이해하면 혼란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 이 경우 주제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즉물적으로 바라보는 자연이다. 조금은 전문적인 집단에서 창작, 향수되고 있지만 그 이데올로기적 통제기구로서의 성격은 명확하다.

*** 이들 용어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두 용어를 필요한 곳에서 적절히 사용하기로 한다. 어떤 명칭이건 현재 대학가와 전체 사회운동권을 중심으로 불리워지는 노래를 의미한다.

주* 일부 대중가요 가수는 자기 기반을 잃지 않으려고 애써 민족의 애환을 담고 있는데 어찌나 떠돌고 있지만 형식상으로 볼 때 명백히 일본 5음계이고, 역사적으로 살펴 볼 때 문화 통치기에 일본 제국주의자에 의해 장려된 것임이 분명하다.

이 부분을 쓰는데 있어서 세삼스레 대중가요의 가사에 대해 이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는 등, 저것은 어떻게 여성을 바라보고 있다고 자세히 이야기 하는 것은 무척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기에 (왜냐하면 대중가요의 가사는 첫째로 그 사소한 표현 방식만 다르지 담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거의 다른 점이 없으며, 둘째로 우리들이 그것을 선호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가사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감각적으로 그 선율이 귀에 편안하고 아름답게 들리기 때문) 대표적으로 왜곡된 여성관을 보여주는 노래가사 몇 개 특히 현재 많은 대학생들에게 선호되고 있는 몇몇 가수의 노래말을 중심으로 몇 부분 인용하고 그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마치고자 한다.

지금의 대중가요는 예전 5,60년대의 뽕짝가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여성을 언급하는 일은 거의 없다.

현재의 대중가요 속에서는 그 유일한 주제인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여성을 말함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세련되고 더욱 교묘하게, 그냥 무심히 들어서는 그것이 어떤 성적인 차별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의식할 수 없도록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몇 개의 노래말을 살펴보자.

-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세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나의 사랑을 믿나요
그대 생각하다보면 모든게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 이선희)

주 • 대표적으로 반야월 작사 박시춘 작곡의 남성 넘버원을 들 수 있다.
그 가사를 인용해 보면,

1. 유학을 하고 영어를 하고 박사호 붙여야만 남자인가요
나라에 충성하고 정의에 살고 친구간 의리있고 인정 베풀고
남에게 친절하고 겸손을 하는 이러한 남자래야 남성넘버원
2. 대학을 가고 영화를 보고 사교춤 추어야만 여자인가요
가난한 집안살림 나라의 살림 알뜰히 살뜰이로 두루 살피며
때론은 행주치마 정성이 어린 이러한 여자래야 여성넘버원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의 역할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사회적인 진출을 하는 여자보다 가정적인 일에 충실한 여성을 이상적인 형태로 규정하는 등 여성에 대한 봉건적 의식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꿈에 어제 꿈에 보았던 이름 모를 너를 못잊어
본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지난꿈 스쳐간 여인이여
(꿈에 · 조덕배)

- 어느날 우연히 서로를 알게 됐지만
사랑을 하면서 슬픔은 커져만 가고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 못하며
슬퍼지면 어때요 울어버리면 되지
떠난 님이 그리워 방황하고 있어요
미워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
(님 떠난후 · 장 덕)

- 그대여 추억의 이 밤을 이제는 잊어야지
아아 그리움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대 아픈 상처를 이제는 지워봐요
(상처 · 이광조)

- 매일 그대와 아침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눈을 뜨고파
아아 - 매일 그대와 밤의 꿈에 안겨서
매일 그대와 잠이 들고파
(매일 그대와 · 강인원)

-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대 내곁에 있어요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
혼자 건다가 어두운 밤이 오면
그대 생각나 울며 걸어요
(난 아직 모르잖아요 · 이문세)

- 이 세상에 오직 한사람 당신을 사랑하면서
살아온 지난날이 행복했어요
아무런 후회 없어요

당신 위해 자식 위해 가는 이 길이
여자의 숙명이요 운명인 것을
..... 사랑합니다.

(부부 제 2절)

이렇게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가사를 인용하는 이유는 선율을 제거하고 남은 가사가 얼마만큼이나 조잡한 것인지 느꼈으면 해서이다. 이렇게 바라보자면 선율이 우리들의 의식을 얼마나 마비시켰는지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노래말들에서 연상되어지는 '여성'의 태도는,

- 당신을 끝까지 사랑한다.
- 이별때문에 방황한다.
- 사랑의 배신을 당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겠다.
- 떠나간 사람이 그림다.
- 환상적인 여성의 모습
- 당신이(남) 떠나니까 너무 슬프다 등등

여기서 '여성'은 오로지 사랑만이 삶의 전부이고 이별이 오면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면만의 모습 뿐이다.

마지막으로 인용한 '부부'라는 노래의 제 2절은 완전히 침입가경에 이르러 여자의 삶이 오직 남편, 자식 뒷바라지로 운명지워지고 있다.

위의 가사에서 보여지듯이 대중가요들이 그려내는 여성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다. 이들 노래는 여성의 이상형을 한 남자를 사랑하고 그리하여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성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노동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고 성실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적인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하긴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지!) 그저 사랑 속에 자신을 내던지고 남성에게 자신의 삶을 의존하는, 그것이 실패하면(이별의 순간) 하염없이 슬퍼하는 유아기적인 여성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노래들이 선호되어 지는 이유는 그 선율 때문인지 가사 때문인지 가사 때문은 아니라고 해도 이러한 노래에 젖어 생활하다 보면 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의지는 어느새 조금씩 상실되어지며 그러한 내용에 순응하는 성향 또한 조금씩 증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중가요는 의식을 마비시켜 여성을 비정치화시키고 여성을 사회에서 끌어내고 가정으로 치넣으며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야말로 대중가요는 ideology적 통제기구로서 자기 역할을 어느 때보다도 충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감미롭고 누구나 쉽게 젖어들 수 있는 아름다운 선율을 통하여

II

현재 대학가에서 저항가요로 불리워지는 노래는 전통 민요에서 구전가요·창작곡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수백곡은 되리라 생각된다.

그 중에서 여성문제를 다룬 노래들은 약 30곡 내외이다.(악보 참조) 이 노래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여성의 구체적인 삶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우선 민요조의 노래에서 보여지는 것은 노동하는 모습, 고부간의 갈등, 남편과의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며, 그러한 괴로움을 풀어내는 한풀이와

건강성 회복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반면 비교적 최근의 노래에서는 여성운동의 과학적인 인식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모습에서 탈피하고 억압과 절곡을 깨뜨리려고 하는 의지가 담긴 내용들이 가사로 채택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래들은 대중가요에서는 눈썰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노동하는 여인상'이 나타나며 구조적인 압박과 노동의 괴로움 등을 느끼고 몹시 힘겨워 하지만 그 쌓인 한을 풀고 내일의 삶을 준비하는 '건강한 여인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점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 노래들을 몇 가지 종류로 분류해 보기로 하자.

1군: 전통적, 봉건적 사회 구조속에서 여성으로 받는 고된 압박을 노래한 전통민요, 구전가요류

- 동당에 타령
- 이어도 I, II
- 진도 아리랑
- 진주 난봉가
- 영정귀야

2군: 여성노동자로서 가지는 애환과 압박, 자본주의 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윤락여성 문제

- 제물 다룬 노래
- 이 세상 어딘가에
- 누나의 얼굴
- 살아온 이야기
- 우리 이야기
- 깜박잠

기지촌
예레나 I, II
사계
귀례 이야기
시대의 꿈 I, II
열여섯 꿈
서울길 I, II

3군: 여성문제를 운동적 시각에서 다룬 창작가요와 민요

금사술 은사술
예사당
이세계 절반은 나
모두가 주인되어
가요 / 나는 가요
여성해방가(노동해방가 2)
여성해방의 노래
뜨거운 가슴

4군: 기타(대중가요가 긍정적 의미로 차용된 경우)

아다다
아내의 노래 등

여기서 먼저 제1군의 노래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노래들은 그야말로 오랜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삶을 직접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살아 남은, 강한 생명력을 지닌 노래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는 봉건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으로 받는 여러가지 압박-노동의 힘듦, 고부간의 문제, 남편 때문에 가지는 괴로움-들을 노래하면서 그 한을 푸는 한풀이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제주도 민요인 '이어도'의 가사를 보자.

습로야 땀땀 돌아진 섬에
먹으나 굶으나 물질을 하여 으샤으샤

우리 어멍 날 낳을 적에
어느 마당에 미역국 먹었 " "

성님 성님 사촌 성님
시집살이가 어떻습디랴 " "

한푼 두푼 모은 돈도
남군님 술값에 모자라 간다. "

이어도 물은 저승물이요
이어도 물은 저승물이라.

물론 여자가 대부분의 일을 하는 제주도의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하겠지만 노동의 고됨 그리고 여자로 태어난 자신의 신세 한탄(2절), 시집살이의 고됨을 암시(3절), 남편의 문제로 고통받는 모습(4절) 등 여성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훤히 그려지고 있다. 또한 단순히 이런 힘겨움을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렴구의 '으샤으샤'에서 보듯 그 괴로움을 이기고 다음 노동을 준비하는 건강한 모습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외 진도아리랑에서는 봉건적이고 억압적인 성 윤리에 반발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바라는 내용의 가사가 보여지며(예: 우리집 서방님은 명태잡이 갔는데 바람아 구름아 석달 열흘만 불어라) 그 외의 노래에서도 여성으로 받는 괴로움들을 구체적인 삶을 통해(노동하는 삶)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구체성과 건강성은 현재의 정서에도 적절히 접목시킬 수 있으며 또한 민요로서의 가락이 지니는 특유의 해학과 집단적 한풀이 성격으로 끊임없이 향유될 수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류의 노래들은 지금도 많이 불리워지고 있지만 그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므로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노래가 발굴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제2군의 노래들은 여성문제에 초점이 맞추어 지기 보다는 주로 노동현장의 괴로움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불리워지고 있다. 그것은 우선 창작자가 여성문제의 지적이라는 의도로서 보다는 노동현장에서 받는 괴로움을 주로 여공을 통해 표현하려 했기 때문이다. 현장가요 중 상당수가 여공을 화자로 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계급적 측면의 고통에 성차별(임금차별, 성폭행 등)이 부가되어 더욱 첨예한 형태로 노동현장의 실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들 노래중 가사 하나만 인용해 보자.

내가 어렸을 적 임마가 말했어
서울에 가서 돈벌어 갖고 시골에 와서 시집가라고
.....
서울은 너무나 싫어 공장이 너무나 무서워
다시는 공장에 안갈거라고
.....

주* 여기서의 현장가요는 현장에서 불리워지거나 노동자에 의해 만들어 졌다는 것이 아니라 향유하는 곳이나, 창작자가 누구이건 상관없이 노래하는 가요를 뜻한다.

엄마 엄마 그러나 알겠어요 우리가 노동자 된 것
우리들 모두의 운명이라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굳센 용기 힘을 모아 싸우리 가자
악의 무리 물리치는 노동자가 됩시다.

- 살아온 이야기 -

이런 류의 노래는 그 초점이 여성에 맞춰지기보다는 노동자라는 계급에 맞춰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여학생운동이 활성화 되어 부분운동으로서 자기 위상을 정확히 잡아나가고 그 인식이 심화되면서 의미를 역전시켜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된다.

제3군의 경우 여성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한 사람에게서 만들어지고 또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불리워지는 노래라고 볼 수 있다.

'모두가 주인되어'의 경우 명확한 의식성을 바탕으로 이제는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자세를 노래하고 있고, 여성해방가의 경우 전형적인 대학가요의 형식을 띠면서 어느 정도의 투쟁성을 담보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류의 노래들이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갖추지 않으면 쉽게 부를 수가 없고, 구체적인 삶과 접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류의 노래에 비해 일상성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이런 형식의 노래들은 계속 창작되어야 하며 그 속에 담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인 내용으로 소화해 낼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여성운동이 발전해 나간다면 많이 불리워질 노래로 끊임없이 요구될 것이다.

- 주** 이 노래는 노동자의 손에 의해 직접 작사·작곡된 노래이며 같은 류의 다른 노래에서 보여지는 추상적 내용과 예상적 분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여기서 화자인 여공은 처음 어머니에게 서울에 가서 돈벌어 시골에 와 시집가라는 일종의 봉건적 가치관과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지만 공장의 현실과 부딪치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일시적으로 좌절한다. 그런 후에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과 구체적 삶을 살아나갈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노래이다. 이 속에서 보여지는 여성 노동자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강한 그리고 삶을 주체적으로 절망하지 않고 건강히 살아가는 모습이다.
- *** 그리고 하나더 덧붙이자면 이런 노래들은 서구적 음계에 실린 노래보다 전통적 음계를 사용한 노래들이 더욱 그 구체성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한다면 좋을 것 같다.(가요 가요/, 예사당 등)

결론

4

이상 짧은 글을 통해 대중가요가 가지는 여성관의 문제점과 현재 대학가에서 불리워지고 있는 노래중 여성문제를 다룬 것들을 정리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위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대중가요가 가지는 한계라는 것은 논의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논하는데 어느 정도 지면을 할애했던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에게서 불리워지고 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래는 사람들의 입에서 불리워지고 향유될 때만 가치를 지닌다. 아무리 그 가사가 좋고 민족적 형식을 갖춘 노래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리워지지 않을 때 그것은 더이상 아무런 중요성도 지니지 못한다.

반대로 그것이 차마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서구적인 음계와 리듬으로 정신이 어지러운 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향유되어 진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대중가요가 현재 대학생 내부, 특히 감성이 더 발달되어 있는 여학생들 사이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은 올바른 여성관에 입각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좋은 노래가 만들어져 계속 유통되어지고, 대중들 속에서 여성문제가 널리 인식되어 그러한 내용이 대중가요를 주체적으로 거부하게 될 때만이 배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대학가에서 여성문제를 다룬 노래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도 아니라고 본다. 다만 여성운동(여학생운동)의 상대적 열세로 인해 구체적으로 불리워질 장이 없어 찾아 불리워지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여학생운동을 이끌어 나갈 여학생부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또한 그 활동으로 인해 더 좋은 노래, 더 널리 불리워질 수 있는 노래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모두가 주인되어"의 가사를 끝으로 이 글을 마칠까 한다.

“모두가 주인되어”

나 이제 보살핌이 필요없어요
철없는 어린애가 아니니까요
난 이제 속삭임도 필요없어요
어여쁜 노리개가 아니니까요

내 사랑하는 이여 걱정말아요
저 멀리 떠나는건 아니니까요
당신 자리 뺏는 것도 아니에요
다함께 사는 세상 만드는 것 뿐

이제는 누구라도 슬프지 않게
이제는 누구라도 행복하게
다시는 종이 되어 눌리지 않게
모두가 주인되어 살아야 해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이기에
나 이제 주인되어 살아갈래요.



그 고운손에... 연세대의 신사와 숙녀

— 만화사랑 그림 —





세팅 완료



실험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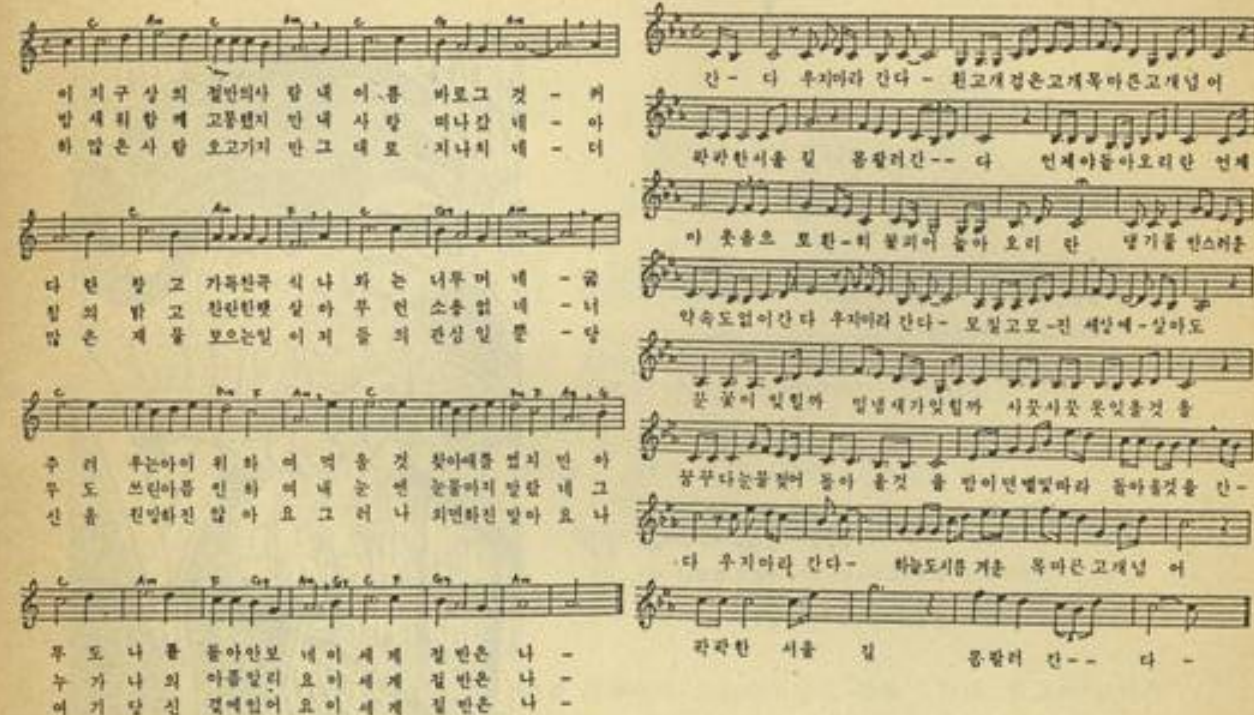


이 세계 절반은 나

Ross McIlhenny (Australia)

서울 길 I

김지하 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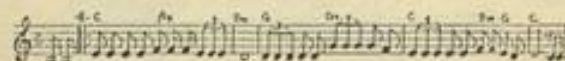
이 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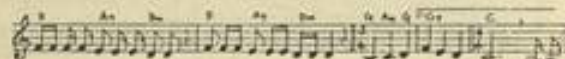
- (선창)
- 우리네는 - 소남배요 -
 - 남의 배의 아아아 - 북대남배라 으사 으사
 - 우리 어머 - 남 남을적새 -
 - 어느 바닷에 아아아 - 미역국먹일 으사 으사
 - 성님 성님 - 사촌성님 -
 - 시집살이가 아아아 - 어떻게살지 으사 으사
 - 한문 두문 - 모은돈도 -
 - 남군님 술값에 아아아 - 모자라 간다 으사 으사
 - 이 어 도 물은 - 저술물이요 -
 - 이 어 도 물은 - 아아아 - 저술문이라 으사 으사

함께 부르는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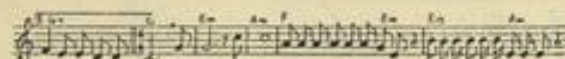
살아 온 이야기



내가 어렸을 적 어머니 옆에서 그 이름에서 지은 이야기
처녀를 다닌 글-을 쓴 나무나빌고양-은 한-일 침묵의 연호를 한
가서였다 오빠의 제복에 그-후에 내가 알았으니 오빠의 연호를 알았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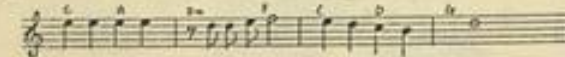
서-를-너무나 좋아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왔더니 다 서울
서-를-너무나 좋아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왔더니 다 서울
공산이 만능일이었어 공산이 만능일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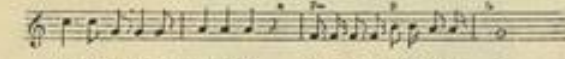
재물이 있어도 없어도 마흔살은 너무나 되어 공산이 만능일이었어
안 되겠다-고 없어도 마흔살은 너무나 되어 공산이 만능일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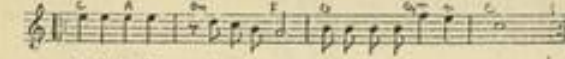
다시는 공산에 안 걸려라 고-집에
우리들 모두의 운명이야 고-어



공산이 만능일이었어 공산이 만능일이었어



비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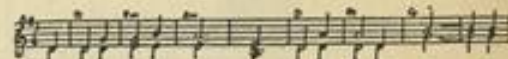


식객부리 물리치는 노동자가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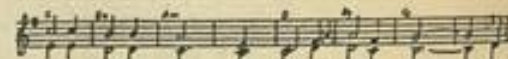


모두가 주인되어

이미경 작사 조동호 작곡



1. 난 이제 모살한 이 황조림이요 - 불
이제 목욕탕도 황조림이요 - 불
2. 내 사랑 하는 이 여직원이요 - 지
산자 된 것은 도마니에요 - 다
3. 이 재는 누구의 도술이지요 - 이
시는 종이의 여종이요 - 모



없는 여인 이 가 아-니 니까 요 - 난
여인 노리 게 가 아-니 니까 요 - 난
벌리 제나 가는 인 아-니 니까 요 - 난
함께 사는 세 상 인-도 눈짓 못 - 다
재는 누구의 도 술-였 지요 - 다
누가 주인 되 어 살-아 이레 요 -



아 무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기 억



나 이제 주인이 어 살아 살데 요 -

여성 소식



파주여중고 학원민주화 투쟁

파주 여중고는 경기도 파주군에 소재한 학교로서 2,000여명의 학생이 있다. 학교의 요직과 교사다수가 이사장과 인척관계에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족벌체제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양철민 교장은 각종 성금, 수학여행비 등을 착복하고 이사장 생일, 명절, 학교행사마다 교사로 부터 월급을 공제하는 등 영리위주로 학교를 운영하여 학생과 교사를 자신의 사병처럼 다루면서 인권을 짓밟는 일을 서슴치 않았으며 체육교사 최광진은 자기 제자 8명(확인된 숫자)을 강간하였다. 이러한 재단비리와 학교운영의 비민주적, 비교육적인 요소들에 대항하여 7월 1일부터 학교 민주화를 위한 12개 요구사항을 내걸고 시위에 들어갔다. 그런데 재단측의 사주를 받은 일부 교사와 서무과 직원이 여학생들을 각목과 가죽혁대로 무차별 폭행하여 47명이 부상당하였으며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재단, 경기도 교위, 경찰측은 학생들의 투쟁에 수많은 기만과 폭력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파주여중고 사태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15일부터 5일간 종로 5가 기독교회관 인권위원회에서 농성을 한 결과 이사장과 교장의 사표처리, 폭력직원 6명 사표와 학생회 직선제를 쟁취하였다. 싸움의 과정 속에서 파주여중고 여학생들이 보여준 투쟁적인 모습은 성 모순과 교육문제가 첨예화된 고등학교 속에서도 충분히 싸움의 가능성들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권인숙 석방 환영 및 86 여성운동 인물 선정 기념식

지난 9월 14일 오후 6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놀라운 도덕적 용기로 이천만 여성에게 절망 대신 용기를 굴종 대신 항거의 정신을 일깨워 준 권인숙 양을 여성단체연합이 「86 여성운동 인물」로 선정하였다. 권인숙 양을 「여성운동 인물」로 선정한 이유를 「그녀의 투쟁이 가부장적 문화와 군부독재의 이중적 억압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힘찬 용기와 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한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고문을 자행하였던 형사 문귀동은 구속되기는 커녕 말단 경찰관에서 구두공장 사장으로 출세하여 거리낌없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실을 쟁취하고자 몸부림쳤던 권양과 우리들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도 민주화나, 문귀동을 즉각 구속하라!”

한국여성 권우회 창립

가



□ 억압의 상징인 사슬을 끊고, 떠오르는 해방의 햇살과 여성의 머리를 같은 모양으로 표현, 구상하고 원만한 국선으로 생명력과 움직임을 주었음.

여성들의 억압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극복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대결에 동참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모임인 한국여성 권우회가 지난 9월 12일 여성백인회관에서 창립식을 가졌다.

“기존의 여성운동이 관념적 과격성으로 이어지고 대다수 여성과는 유리되고 말았다. 몇몇 앞장선 여성들이 목청을 높였을 뿐 대다수의 고통받는 여성들은 이들을 따라나서지도, 이들의 외침을 자신의 문제와 연결시키지도 못하였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벽을 뛰어넘고자 여성대중이 함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 우리들은 일상적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여성대중들이 함께 실천하면서 여성해방의 길에 동참하는 공간을 지향할 것이다.”

창립선언문에서 취지를 밝혔듯이 기존 여성운동의 대중여성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대중속에 파고드는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 조직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취업에서의 성차별 실태와 개선방향을 위한 토론회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성차별이라는 또하나의 굴레를 쓰고 있는 여성취업 조건에 관심

이 환기되는 가운데 지난 9월 5일 “취업에서의 성차별 실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민주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추상적으로 헌법에서는 취업에서의 남녀평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하위법과 관행이 이를 뒤따르지 못해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 취업조항 등을 따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문미란씨와 이은영씨의 기조발제 1. 여성차별 관행에 관한 연구, 2. 여성취업촉진법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 사회학 교수 정진성씨와 조영래 변호사는 질문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조영래 변호사는 자신의 경험속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근로기준법 5항은 형벌법규로는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남녀 불평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사례를 모아서 헌법에 제시될 수 있도록취업문제에 있어서도 여성단체에서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헌법에 실린 조항들이 실행되기 위하여서는 집행을 위한 특별기구가 필요하고 법적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로여성의 집’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성의 권리와 함께 모성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탁아소 시설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조항은,

- 1) 구인광고에서 특정성만을 요구하거나 채용조건을 특정성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평등이다.
 - 2) 남녀의 직종을 달리함으로써 사실상 남녀의 임금격차를 두는 경우는 불평등이다.
 - 3) 남녀의 직종을 달리함으로써 특정성에게만 직업훈련을 시키거나, 업무배치를 하거나 승진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은 불평등이다.
 - 4) 여성의 직종에 한해서 정년을 낮은 연령으로 하는 경우는 불평등이다.
- 구체적 조항들의 제시는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이러한 조항들을 쟁취하기 위한 추진력이 부족한 듯하였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 부분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 —

지난 9월 14일부터 한국기독교학생회 총연맹 주최로 향린교회에서 각 부문운동에 대한 강연회가 있었다. 그중에서 9월 17일 여성운동에 대한 강연회에 참석하였는데 한명숙 강사(이대 대학원 여성학 강사)와 이성덕(여성의 전화)씨가 여성운동의 내용과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현 사회에 나타난 여성운동의 진행을 현장속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200여명의 참석자들(주로 여대생)의 진지한 자세 속에서 여성운동의 발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여성과 현실 무엇을 보는가?



— 여성작가 40인 그림전차 —

9월 11일~17일 인사동 그림마당 「민」에서 한국여성의 생활과 수난을 담은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이 전시회에 5명의 공동작품 '평등을 위하여'라는 대형 벽화도 출품되었다.

15일 5시에는 최석태, 이미경씨를 모시고 여성과 미술에 대한 강연회를 가졌고, 17일 평가회를 가졌다. 40명의 여성작가가 기획전을 가지기 전에 내용에 대한 공유가 없었기 때문에 기획전으로써의 일관성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여성문제를 내용으로 다루는데 그치지 않고 그림에서의 여성적 요소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전시회의 취지였으나 그 목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본다.

씨아리

를 소개합니다.

“남성답다”는 말을 듣는 여학생, “여성답다”는 말을 듣는 남학생, 남녀평등, 여성해방에 관심있는 분, 혹은 “그까짓 것”하면서 외면하는 사회학도 여러분! “여성다움” “남성다움”의 허구를 깨닫고 부당한 성차별과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기 씨아리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씨아리는 사회학과 86 몇몇의 여학생들이 시도하는 창조적인 공동체입니다. 1년 반이 넘는 동안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점을 반성하고 여기에 사랑의 공동체를 엮었습니다.

씨아리의 “씨”는 인간의 창조적 본능

남성과 여성의 -또는 그 어떠한 인간관계도- 지배,

복종이 아닌 진정한 협력관계가 있는, 그러한 미래

를 위한 씨를 뜻하고,

“아리”는 동아리에서 나온 말로 우리 공동체를 뜻합니다.

20여년간 사회 또는 가정에서 길들여진 연약하고 의존적인 여성이기를 거부하고 자주적인 인간임을 확인하고,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는 모든 성차별적, 성 억압적 모습들을 하나씩 파헤쳐 적절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시간: 2시, 장소: 미정) 여성의 문제들을 공부하고 여성운동의 올바른 방향 등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토론의 장을 갖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수련회 및 모든 과 성원들과 함께 하는 공개토론회 등을 가질 계획입니다. 사회학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도우심과 관심과 충고 바랍니다.

1987년 9월 22일 사회학과 씨아리

인문·사회과학 전문서점

을

서

점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31-13
☎ 392-5291

여성문제의 과학적 인식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여성문제의 해결은 오직 모순의 담지자인 여성 스스로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가능하며, 있으며, 이것은 우리 시대의 역사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실천으로 매개된 여성학의 이론적 정립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기 위하여 간략한 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책들 속에서 새로이 습득하는 지식들을 적극적 문제제기와 실천을 통하여 인식의 확장과 진정한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켜 지식과 삶이 일치하는 참다운 여성관의 정립을 시도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읍니다. 더불어 보다 폭넓고 세밀한 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으며 다음에는 보다 충실하고 발전적인 내용의 목록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데군데 보이는 모자람은 여러 분들의 의지로서 극복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학 입문

가장 기본적이고 당면한 여성문제 인식의 첫걸음으로서 성모순의 본질과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보면서 제3세계 일반의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대학사회에서도 왜곡되어져 나타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의 올바른 여성운동론을 고찰해 보기로 합니다.

토의 내용	1. 성모순의 본질은 어디에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차이에서 유래하는가? 2.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서 여성노동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3. 제3세계 일반, 특히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모습은 어떠한가? 4. 남녀 공학내에서 여학생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필독 도서	〈여성 1〉 '여성운동의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심정인, 창비) · 사회과학 개론 '여성문제의 본질과 형태' (이승희, 백산서당) · 가족의 기원 (프리드리히 엥겔스, 아침) 〈여성평론〉 제3호 '제3세계 여성운동시론' (여성평우회) · 여성문제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한국 여성 노동자회) · 남녀공학의 문제 (조혜정 교수, 연세대 여학생처)
교양 도서	· 〈또 하나의 문화〉 3호 (평민사) · 나는 나 1 (유디트 안베르그, 청하)

- 신데렐라 콤플렉스 (클레트 다울링, 우아당)
- 빼앗긴 일터 (장남수, 창비사)

여성사

여성의 사회구조적 억압과 수탈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핵심적 원인을 분석해 내고 특히 자본주의 사회경제구조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살펴봅시다.

토의 내용	1. 여성의 억압이 사회구조의 발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2.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여성노동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이용되었는가?
필독 도서	· 〈역사 1호〉 '여성의 역사' (고려대 총여학생회) · 여성과 생산양식 5, 6장 (케이트 영 / 베로니카 비치, 한겨레) · 여성론 (아우구스트 베벨, 까치)
참고 도서	· 성의 역사 (레이 탄나힐, 김영사) · 산업사회의 여성 (싸티오피, 일월서각) · 인간의 역사 (조우화, 동녘) · 경제사 입문 (김준호, 백산서당) · 서양 경제사 강의 (장상환 옮김, 미래사) · 제3세계 여성노동 (여성평우회, 창비사)

한국 사회 여성의 현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유교적 봉건질서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뿌리깊이 잠재되어 있고, 자본주의 수탈구조의 최하위층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성모순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극복방안을 모색해 봅시다.

토의 내용	1. 한국 여성노동자의 현실 인식 2. 농촌 여성과 도시빈민 여성의 생활 실태 파악 3. 매춘 여성의 제도화에 대한 문제점 4. 각 사회분야에 나타나는 여성의 왜곡된 모습
필독 도서	· 한국 여성노동의 현장 (한국여성노동자회, 백산서당) · 여성학 (이대 출판부) · 빈민여성 빈민아동 (강명순, 아침) · 한국의 가난한 여성에 대한 연구 (민중사) ·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이효재, 창비사)

	· 무엇이 여성해방인가? (마쭈이 야요리, 백산서당) · '이육사 관광기생이 되고만 이 처녀들' (푸리깊은 나무 '79.5) · 여성과 사회 '시민사회에 필요한 사회제도로서의 매춘' (아우구스트 베벨, 한말) · <현장 1> '기생관광에 짓밟히는 우리 딸들' · '왜곡된 성의 역사 가내노예에서 기생관광까지' (돌베개) · <대화> '윤락여성이 있는 사회'
참고 문헌	· 여성·노동·법 (신인영, 풀빛) · <여성 1> '불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성차별 교육' · '여성의식을 오도하는 대중매체' (창비사) · <석순 3호> '여성문화론' (고려대 총여학생회) · 불꽃이여, 이 어둠을 밝혀라 (이태호, 돌베개) · 나의 여공애사 (다카이 도시, 백산서당)

한국 여성 운동사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삼중적(성, 계급, 민족모순)으로 억압받고 있는 불평등 구조를 극복해 나가려는 한국 여성 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수용하면서 현재 여성 운동의 방향을 모색해 봅시다.

토의 내용	1.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의 일익을 담당하던 여성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2. 70년대의 여성노동운동과 80년대의 여성단체운동에 대한 비판과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필독 도서	·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한국 여성운동소사' (이효재, 창비사) · 일제하 식민지시대의 민족운동 '1920년대 초 항일 부녀단체의 지도층 형성과 사상' (풀빛) ·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분단시대의 여성문제' (까치)
교양 도서	· 아리랑 고개의 여인 (고준석, 한울)

서구 여성 운동론의 발전

서구의 각 여성해방이론을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이론들이 가진 발전형태와 한계점을 올바르게 수용, 비판해 봅시다. 서구 여성운동론은 사회구조적 맥락에서의 성문제를 간과한 시각이긴 하지만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토의 내용	1. 전통 맑시즘, 급진주의,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2. 전통 맑시즘 여성해방론이 가지는 한계점은 무엇인가? 3.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발전적 적용은 무엇인가?
필독 도서	· 여성과 사회 (아우구스트 베벨, 한말) · 여성해방과 성의 현실 (일월서각) · 성의 변증법 (슬라이스 화이어스톤, 풀빛) · 여성해방 논쟁 (P. 해밀턴, 풀빛) · 여성해방 사상의 흐름 (백산서당) ·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P. 스트럴 / A. 재거, 풀빛) · 여성의 지위 (줄리에트 미첼, 동녘)

각국의 여성해방운동

이제 제3세계나 혁명을 수행한 나라들의 여성해방운동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승리의 경험을 재검토하여 우리 나라의 여성해방운동은 어떠한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하는가를 실천적으로 검증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봅시다.

토의 내용	1.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한 나라들 속에서 여성해방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2. 제3세계에서 여성해방운동은 어떠한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하는가?
필독 도서	· 볼셰비키 혁명과 여성해방 (비어트리스 판스워드, 풀빛) · 클라라 제트킨 선집 (필립 S. 포너, 동녘) · 중국 여성해방운동 (엘리자베스 크롤, 사계절)
참고 도서	·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풀빛) · 하늘의 절반 (클로디 브로이엘, 동녘) · 산디노의 딸들 (우리)

이상의 학습 프로그램은 대체적인 개요이므로 각 모임의 성격에 맞게 내용을 골라 학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학습을 기대합니다.

‘잉태’ 편집부

역고나서

여울들의 한덩이 뒀을 느낄 수 있었다.

공동체의 삶속에서

여성자신의 문제를 좀더 깊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할까?

비록 작은 책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상원이 있기를 ...

우리의 땀과 정성으로 이루어졌으니

총여학생회여!

그대 이름에 우리의 힘이 모아지기를.....

- 규 -

뒷골목에 어둠이 짙어갈 때

젊음은 아우성치고 온 세상을 흔들며 깨운다.

드디어, 불꽃의 잉태가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아무리 해산의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절코 아름다운 새 생명의 탄생을 거부하지 않으리

라는 것을,

온 몸으로 새 아침을 향해 달려나가기라는 것을

해산의 고통속에서

아름다운 새 생명이 피어나리라는 것을,

새 아침이 울터오리라는 것을.

- 희 -

너무도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잉태'를 조심스럽게 내밀면서 마치 빛은 몸을 엿보인 듯한 수줍음을 느낀다. 출산을 기다리는 산모가 초조하고 두려우면서도 기대에 부풀는 이런 마음일까 하고 생각해 본다. 쉽게만 생각했던 여학생부의 활동이 여성모순의 본질에 접근해 갈수록 어려워만 가고, 정치적 격변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좌표를 정확히 선정하여 이를 현재적 실천으로 담아 나가기에 너무도 우리의 경험 이 짧아 해야할 많은 일들이 쉬이 손에 잡히지 않아도.....

"겹질을 벗는 아픔을 딛고 하나되어 나아가리니"

- 선 -

"읽은 사람들"

박신규 (불문)	84)
박선영 (영문)	84)
이소연 (의생활)	85)
우지숙 (신방)	85)
문영미 (사학)	85)
이은희 (철학)	85)
박소라 (사회)	86)
천은하 (사회)	86)

연대 여학생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지요?
이번엔 연대 여학생 문화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지요?

팻손으로는 이대 다음 가고, 거칠기로는 고대 여학생들을 못따라 간다고요?

사실 저는 이 질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한 뿌리로 얹히고 섞힌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양을 문화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지요?

우리가 찾게 될 한의 역사, 정신대의 역사, 기지촌의 역사는 곧 우리들의 어머니를, 우리들의 할머니들이 걸어온 발자취예요.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가올 우리의 역사를 사랑할 수 있는 날, 우리는 자랑스러울 거예요.

내가 여자라는 것을,

내가 한반도에 태어난 여자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연대의 여학생이라는 것을

사랑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잉태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잉태의 시작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념 -

87년도는 민주화된 해인가?

과연 우리가 원했던 민주화가 이 한반도를 밝혀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찾으려 했던 밝음은 이런 것이 아닌데.

하지만 이 어둠은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새로운 그 무언가를 잉태한 것 같 막한 어둠.

누가 이 어둠을 밝힐 것인가? 그것

우리 5천여 연세 여학우가 아닌가 생각한다.

어둠을 불사르며 동트는 새벽을 향하여 전진하자! 여학우여!

- 연 -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보다 평평한 땅, 태어나면서 인간이었던 이들이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인간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생각했다. 그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하려는 작은 노력, 모든 것을 다 알기 보다는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려는 작은 몸짓이고 싶었다.

한 인간으로서, 이 시대의 대학생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사회통념이 요구하는 '여성'이 되는 일이 그렇게도 힘든 줄은 몰랐다. 현실의 곳곳에서 여성에 대한 왜곡과 불평등을 느끼면서도, 스스로 그 해결을 시도하기에는 너무도 '여성'으로 길들여져온 우리들, 그래서 너무도 두려워 했던 우리들, 그러나 이 「잉태」지를 통해 만나는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우리들 모두의 노력만이 성적 모순의 바로잡음을, 남성과 여성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 한 권의 책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해 나갈 새로운 장의 마련에 디딤돌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이 책을 읽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16 여성해방논쟁

● R. 헤일턴 著/최민지 譯/2,000원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과 더불어 변화되어 온 여성의 역할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근저를 Feminism과 Marxism의 논쟁을 통해 사회경제사적 시각으로 추적하고 있는 여성문제 입문 교양서.

31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 P. 스트랄 & A. 재거 著/후민희 譯/5,000원

Feminist Frameworks의 번역서로서 여성의 입장에서 현재의 남녀관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기본전제 아래 보수주의, 자유주의,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급진주의,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의 이론과 실천을 소개한다.

76 여성·노동·법

● 신인영 譯/3,000원

한국여성과 여성노동자의 법적·사회적 권리의 확보와 그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노동자와 여성, 한국일보노동조합 여성간부의 법정투쟁사례 및 성차별적 정년문제연구, 한국 법제상 여성의 불평등과 취업중 질병에 대한 법적 보호의 문제를 다룬 여러 논문들을 수록한 평론집.

풀빛 여성관계서적 안내

46 性の 변증법

● 올리미스 헤티어스톤 著/김예숙 譯/3,000원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편견을 지속시키려는 정치·문화구조를 예리하게 파헤치면서 성계급제도가 없어지는 여성해방혁명 이후의 사회적 대안들을 제시한다.

81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 B. 판스워드 著/신민우 譯/5,500원

초기 러시아공산당중앙위원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알렉산드라 M. 콜론타이의 사상과 실천을 통해 러시아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성해방의 문제가 어떻게 제기되고 논쟁을 불러일으켰는가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한국민중사

한국민중사연구회 編



□□ 전근대편·344면 □□ 근현대편·380면

민중 주체의 확고한 역사인식 아래 70년대까지의 한국사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수렴하여 원시시대부터 1980년대 초반에 이르는 반만년 민족사를 새롭게 서술한 한국통사(通史)의 결정판! ●각 4,000원

●반만년 민족사의 역정 속에서 역사의 주체로서 자기를 정립해온 우리 민중의 끈질긴 저력의 근원을 밝히려는 이 책은, 수험용, 상식용의 진부한 역사서에 식상한 지성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며 죽은 사실로서의 지리한 역사가 아닌 생동하는 현실로서의 역사가 주는 감동이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깨우쳐 줄 것이다.

16 여성해방논쟁

● R. 해밀턴 著/최민지 譯/2,800원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과 더불어 변화되어 온 여성의 역할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근저를 Feminism과 Marxism의 논쟁을 통해 사회경제사적 시각으로 추적하고 있는 여성문제 입문 교양서.

풀빛 여성관계서적 안내

31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 P. 스트랩 & A. 재거 編/辛仁瑞 譯/5,000원

Feminist Frameworks의 번역서로서 여성의 입장에서 현재의 남녀관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기본전제 아래 보수주의, 자유주의,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급진주의,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의 이론과 실천을 소개한다.

46 性の 변증법

● 올리비스 화이트스톤 著/김예숙 譯/3,000원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편견을 지속시키려는 정치·문화구조를 예리하게 파헤치면서 성계급제도가 없어지는 여성해방혁명 이후의 사회적 대안들을 제시한다.

76 여성·노동·법

● 신인영 譯編集/3,000원

한국여성과 여성노동자의 법적·사회적 권리의 확보와 그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노동자와 여성, 한국일보노조 여성간부의 법정투정사례 및 성차별적 정년문제연구, 한국 법제상 여성의 불평등과 취업중 질병에 대한 법적 보호의 문제를 다룬 여러 논문들을 수록한 평론집.

81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 B. 판스워드 著/신민우 譯/5,500원

초기 러시아공산당중앙위원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알렉산드라 M. 콜론타이의 사상과 실천을 통해 러시아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성해방의 문제가 어떻게 제기되고 논쟁을 불러일으켰는가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한국민중사

한국민중사연구회 編



전근대편·344면 근현대편·380면

민중 주체의 확고한 역사인식 아래 70년대까지의 한국사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수렴하여 원시시대부터 1980년대 초반에 이르는 반만년 민족사를 새롭게 서술한 한국통사(通史)의 결정판! ●각 4,000원

●반만년 민족사의 역정 속에서 역사의 주체로서 자기를 정립해온 우리 민중의 끈질긴 저력의 근원을 밝혀나간 이 책은, 수험용, 상식용의 진부한 역사서에 식상한 지성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며 죽은 사실로서의 지리한 역사가 아닌 생동하는 현실로서의 역사가 주는 감동이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깨우쳐 줄 것이다.

동녘

120 서대문구 송암로 2가 99-3 일일 313-6080

어머니의노동은 가장 중요한 가치

부신열사, 장기수, 구속 학생·노동자·교사 가족 수기

민주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회 위음

失 名의 빛들.
그러나 어떠한 힘도 그들의 이름을 지울 순 없다. 역사는 끝내 죽지 않고 살아 간헐자들의 손목에 묶인 수갑을 풀게 하며, 이 땅의 민주화의 제단에 바쳐진 수천 수만의 이름없는 이름 낱알이 빛가운데 서게 할 것이다.
아 들과 딸, 남편과 형제를 무덤으로 혹은 차가운 시멘트 벽 속 감옥으로 보내면서 눈물과 한숨과 고통으로 나날을 보낸 수밖에 없었던 구속자 가족들, 특히 어머니들의 육성은 치질한 봄부림과 탄식으로 우리들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진다.
자 식 뒷바라지 하느라, 집안 살림하느라, 먹고 살기에 바빠 하늘 향해 지주 한번 할 새 없고, 또 땅을 향해 침 한번 뱉지 못하던 순박하기만 한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여 어느날 아침 갑자기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한 투사(?)가 되었는가? 2 3,800원





가자! 가자! 오천 여학우여
민주의 횃불들고 외치나니
여성 해방이여!

Date

2학기

PAGE

1987 학년도 여학생부 및 총여학생회 전신위 활동보고서

올해 3월 제20대 총학생회의 순법과 함께 여학생부가 구성되었습니다.
여학생들의 특수적인 이해를 대변해 줄수 있는 그리고 여성운동적인 관점에서
여학생 운동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학생부활동이 전개되었고 그과정속에서
여학생의 자치개로서와 총여학생회의 ~~특수~~ 전신의 필요성들은 문제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학기의 활동 내용 속에서는 총여학생회 전신의 필요성들은
연세 대학 내에서 일러 나가며 그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행사 및
단체 여학생 모임의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하였습니다.

I 여학생회시 임태 창간호 발간: 준비기간 8.9월. 떠날곳 10월 5일

목적: 총여학생회의 필요성 선언

연대내 여학생 여론의 활성화

내용: 특징: 총여학생회 전신을 바라보며

여성 현실: 혼수, 매춘 문제

여성 문화: 여학생 운동, 노래 등의 여성상

여성학 개론

평가: 1) 총여학생회 필요성의 당위론적 제사에서 미흡했고

총여의 위상과 역할에서의 구체성 부족

2) 여학생들의 소극적인 자세 속에서 원고 모집이 안되었고

여학생 대중의 참여속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아는

여부원들의 일방적인 목소리였다.

3) 여학생들의 소극성과 저급한 집사성을 고양시켜주지않는

매개체로서 발전하여야 한다.

4) 심도 깊은 내용성은 없었지만 연대 내에서 처음으로

여학생자가 나왔다는 것에 의의와 여성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5) 연세지와의 사별성과 '임태'지의 위상에 대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가자! 가자! 오천 여학우여
민주의 횃불들고 외치나니
여성 해방이여!

Date _____ PAGE _____
II 서부지역 여성제 ^{준비} 기간: 10월 5일 - 10월 30일
행사: 10월 30일, 31일

목적: 서부지역 여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서부지역 여학생 대표자}
~~여대협~~ ~~반쪽을 위한 토대 마련 및~~ ~~한~~ ~~협의회~~ ~~반쪽식~~
연세 여학생의 문화제 참여를 통한 여성문제 의식 고양

내용: 천재발 김동이 및 열림초
주제강연 및 토론

등재발 개사곡 발표

연극: 연세 여학우 준비 (남녀공학숙에서의 올바른 여성상
마당극

평가: 1) 연극의 공동창작, 공동제작 과정속에서 올바른 여성관
2) 공동체 ~~문화~~ 문화에 대한 ~~이해~~ ~~이해~~ 대해 배울수 있는 기회

2) 흥분의 비비, 연세 여학우들이 조직부재,

서지여성제의 의의 공유 부족으로 인하여 준비과정에
참여한 소수 여학생들의 자족적 행사로 머무렀다.

3) 한국 사회내, 그리고 대학사회내의 건강한 여성문화
의 전신한 필요성 인식.

III 총여학생회 건준위 발족식

일정: 11월 18일

목적: 총학생회 집행부에서 존재하던 여학생부 체계는
총여학생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과외기구로서 건준위의 발족
88년도의 ~~총여학생회~~ 건설의 토대를 닦기 위하여
앞에서 토대를 ~~없었다~~ 선연적의이 속에서 건준위 발족.

내용: 이대 담반 마당극 공연

발족식.

학관로비 전시회, 사진 및 판화.

평가: 1) 많은 행사에서 원거리에서 여학생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소수 여학생의 참여속에 진행되었다.

많은 흥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자! 가자! 오천 여학우여
민주의 횃불들고 외치나니
여성 해방이여!

「잉태」 2호에 실을 원고를 모읍니다.

모으는 부문: ● 논문: 학술논문

● 기획글, 칼럼, 체험수기, 민주남성마당, 여성공동체문화

● 문학: 시, 소설, 희곡, 평론, 마당극, 만화, 수필

모으는 곳: 「잉태」 편집부(학생회관 2층 여학생부실/교내2621)

마감일: 1988년 2월 28일까지

「잉태」 편집위원을 모집합니다.

대상: 연세대학교 86학번 여학생

잉태

창간호

1987년 9월 21일 인쇄

1987년 9월 29일 발행

펴낸이/박 선 영

엮은이/잉태 편집부

찍은곳/춘 추 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134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여학생부

*이책은 팔지 않습니다.